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을 받은 크리스천들이 그 사랑을 육신의 자녀뿐 아니라 영적 자녀들에게 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시편 127편 3-5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6년 4월 30일 (토) 제 1581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 CT, 지구촌 마이너스인구성장에 따른 제임스 답슨 박사의 “자녀출산” 의 진정한 의미 소개

자녀 양육의 최고 권위자 제임스 답슨 박사. 그는 평생 어린이와 가정을 돕는 일에 몰두해 온 심리학자이자 결혼·가정·아동 상담자다. 1977년 포커스 온더 패밀리(Focus on the Family)를 창설, 위기 속에 있는 가정들 안에서 새롭게 세우는 사역을 펼치고 있고 미국의 가정 관련 법률안 제정에 관여하며, 부모와 자녀양육 등 가정의 핵심 주제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답슨 박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세계 전 인구학자들의 선부른 경고(전 세계 인구의 폭발적인 팽창으로 인류가 재난을 맞게 된다는 가설)를 받아들인 인류에게 들이닥친 인재는 다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될 수 있다(Why Children Are a National Blessing: Under-population is the deeper global problem)고, 진솔하게 말해준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특히 기독교 가정은 자녀출산으로 영적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

일어났고, 아버지는 그 물결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인구 조절”은 아버지에게 그리고 지금 나에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을 죽이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가정당 1자녀” 명령과 같은 출산을 제한하는 정부 주도의 정책들이었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는 수백만 명의 여자 아기들이 도랑들이나 쓰레기장에, 그리고 우물물에 버려져 죽어갔다. 여기에는 일말의 동정이나 관심도 없이 남자 아이를 바라는 중국인들의 희망이, 여자 아이들은 철저히 버려도록 만들었다. 인구 조절의 결과가 빚어낸 또 다른 비극

이 있다. 바로 수십년 동안 아기들을 살해해 온 정부 지원 낙태 시설(Planned Parenthood)의 경이적인 발전(?)이다. 최근에는, 심지어 동 시설 관계자들이 돈을 받고 낙태를 통해 죽어간 아기들의 장기 즉 뇌, 심장, 그리고 다른 장기들을 팔기까지 하고 있다. 따라서 적출된 장기들을 냉동이나 다른 방법들을 통해 살아 있는 상태로 보관해 더 높은 가격으로 매매를 일삼고 있다.

미국인들은 이러한 인륜에 어긋나는 행위들을 알고 분노했다. 그러나 그들은 또 다시 침묵에 빠진다. <3면으로 계속>

##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는 사역의 장”

### 리더십저널, 로버트 콜만 목사의 제자훈련/ 소그룹 활동 프로그램의 중요성 소개

성경 말씀은 삶으로 순종하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다. 예수님이 당대 과학적인 인본주의자였던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을 하신 것에서 이 사실이 잘 드러난다. 사두개인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과부가 된 여인이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해 남편의 형제와 혼인하는 문제에 대해 예수님께 물었다(마22:23-33). 이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가정에 근거한 질문이었다. 이들은 실제 삶에 존재하지 않는, 가정에 근거해서 부활을 부정하고자 했다.

예수는 이들에 대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다”고 일갈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설명하셨는데, 예수께서 이 설명을 하실 때의 근거구절은 유대인이 채의 심일조를 바치는 등 그 세부사항을 지키는 데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했다. 또 관습적인 행동을 지키는 것을 순종으로 볼 수도 없다.

### 성경 말씀은 삶으로 순종하는 자만 깨달을 수 있어 말씀은 삶의 원리, 삶은 성경의 증거 되는 생활해야

라면 다 알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었다. 다만 사두개인들은 이 익숙한 말씀을 삶에 적용한다는 생각을 못했으니, 예수님은 매일의 삶을 말씀에 근거하여 살고 계셨기 때문에 이를 통해 진리를 꿰뚫고 계셨던 것이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피상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삶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성경을 삶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단지 의식(ritual)으로서의 예배를 잘 드리고,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수는 박하와 회향과 근

예수는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관습을 어겼다고 제자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 그들의 의식을 꾸짖으셨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결국 이런 지식에만 머물러 있거나,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종교적인 관습이 곧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제자훈련과 소그룹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설명은 바로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도록 만드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소그룹은 설교나 강의에 비해 비효율적이다. <3면으로 계속>

###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 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 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 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 조은출판사

20년 경력의 “월간광야” 노하우로  
원고 수정부터 편집, 인쇄까지  
품격있는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Tel (626)789-1301  
대표 박희정 목사 myong@joenchulpan.com



“중국 공산당원들 종교 갖지 말라!” 2면



이제는 게 힘이다! 새라김 사모 5면



고난의 신학: 용기에 대한 묵상 이승현 박사 7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8면



# Midwest University

## 초청! 개교 30주년 기념 특강 및 학위 수여식

### Global Leadership Forum



**설립자, 총장**  
Dr. James Song



**Alexander Trofimovich Semchenko**  
러시아 모스크바 건설그룹 회장  
러시아 기독교 연합회 총회장 역임  
Russia's Christian past, present and future  
주제: 러시아의 기독교, 과거, 현재, 미래



**Dr. Pho Kaung**  
President, University of Yangon  
미얀마 양곤 대학교 총장  
Myanmar's education and future  
주제: 미얀마의 교육과 미래



**Buhm Jung Roe, CEO**  
NY FUND CEO, 뉴욕투자회사 회장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Seoul, Korea.  
뉴욕 연방에 수십개의 고층빌딩을 건축 및 투자  
For your future/ Invest to America  
주제: 당신의 미래를 위해 미국에 투자 하라!



**Dr. Dae Y, Shin CEO, DSE**  
DSE 미국 첨단유기 “빙기 버스터” 개발회사  
미국전력의 핵심부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주제: 최첨단유기과 미국 & 리더십

### Special Programs June 13-18, 2016

- ▶ Global Leadership Forum 리더십 포럼  
June 17, Friday 8:30 am-12:00 pm
- ▶ Commencement 학위수여식  
June 17, Friday 3:00 pm- 5:00 pm
- ▶ Midwest Concert. 축하 음악회  
June 17, Friday 7:00 pm-9:00 pm
- ▶ IEA Ordination 목사안수식  
June 18, Saturday 10:00 am-12:00 pm

문의: usa@midwest.edu



##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703)626-8712  
E-mail: wdc@midwest.edu, ykko9191@yahoo.com

# “중국 공산당원들 종교 갖지 말라!”

## FP, 경제 성장이후 중국 공산당 내부 균열 분석

### 기독교 정신, 사상적 회귀가 원인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산당원은 굳건한 마르크스주의 무신론자가 되어 하며 절대로 종교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할 정도로, 인터넷과 SNS를 통한 정보와 교류 증가로 종교인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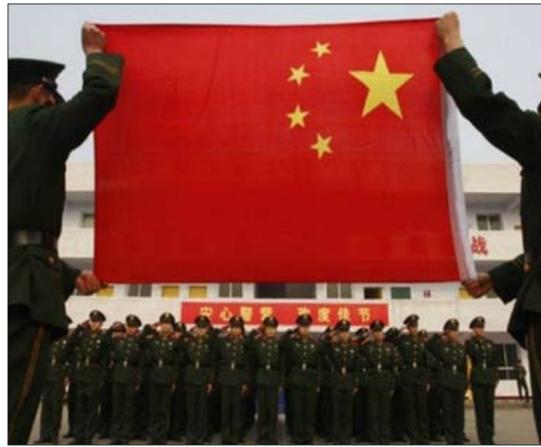
시진핑 주석은 최근 북경에서 열린 '전국종교공작회의'에 참석해서 한 '중요연설'을 통해 "새로운 국면에서 우리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종교이론을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의 이 발언은 8천만 명에 이르는 공산당원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현재 중국에서는 인터넷 등의 발달과 함께 종교와 신자 수가 늘

고 있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점점 강화되는 추세다. 중국 공산당의 사정·감찰 총괄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지난해 5월 발행된 회보 여론란에서 당원들의 종교문제가 "심각한 사안"이 됐다면서 "일부 당원들이 당의 변증법적 유물론 원칙을 버리고 종교로 돌아선 것은 감찰의 범위에 포함될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종교적 신념을 위해 탈당을 선택하는 공산당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포린 폴리시(FP)'는 이처럼 종교 즉 기독교 수용에 따른 중국 공산당 내부 균열의 원인이 급성장세에서 침체로 접어들어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사상이나 정신적인 측면 때문이라고 분석한다(China's Coming Ideological Wars: In the reform era, economic growth reigned supreme. But now, a revival of competing beliefs has polarized Chinese society).



한다. 입증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역사유물론적 사유를 강조해온 사회주의 중국은, 민중들에게 이념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이론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그 이론적 설명의 결과로 바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종교 이론이요, 이를 근거로 발전한 것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종교 정책이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 당원들마저도 주저 없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현실 앞에서 중국 특유의 실사구시적 사회주의 종교 정책은 그 영향력을 상실한다. 종교는 사회주의 체제를 완성하

### 중국 종교정책 '종교가 사회주의에 적응하도록 유도한다' 강조 기독교 받아들이면서 종교적 신념 위해 탈당하는 공산당원도

이익에 관련된 종교문제를 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최고지도부가 참석하는 '전국종교공작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앞으로 중국 내에서 종교적 단속이 대폭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체제 개방 이후로, 중국공산당은 '정치적으로는 단결하고 신앙적으로는 서로 존중한다(政治上合作, 信仰上互相尊重)'는 구호를 앞세워 종교계가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역사유물주의에 근거한 종교와 사회의 상호작용 이론이다. 이는 신학적으로 확장돼 중국교회에 애국하고 법을 지키고 단결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신학을 가져야 한다는 신학적 명제가 됐다. 특히 종교의 긍정적 역할로 애국애교와 화해, 사

회봉사, 외세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한다. 결국 중국 종교 정책의 형성은 중국공산당이 사회주의 종교관과 현대 중국사회의 현실을 실사구시(實事求是)적으로 재해석한 국가 통치 이념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이라 할 수 있다.

개혁개방은 중국의 종교 정책에 실천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의 종교자유정책은 사회주의 체제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사회주의 이념으로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종교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실사구시의 입장에서 받아들여 제도적인 틀 안에서 종교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종교 정책이 '종교가 사회주의에 적응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부정적인 사회현상인 종교는 결국 소멸할 것이라고 보는 사회주의 종교관은 종교의 존재를 이념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구체적인 현실 속에는 엄연히 종교가 존재

는 수단 중의 하나여야 하는데, 목적으로 180도 변경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어느 정도의 경제적 성장으로 당장 먹고 사는 것에서 자유로워진 중국인들은 사회주의가 아닌 중국 고유의 정신과 사상에 다시 눈을 돌리고 있다.

(3면으로 계속)



## 시론

###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



은희곤 목사 (참사랑교회)

어느 날 간디를 찾아 먼 길을 아들과 함께 걸은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 아들이 설탕을 지나치게 좋아해요. 건강에 나쁘다고 아무리 타일러도 제 애긴 듣지 않아요. 그런데 제 아들이 간디 선생님을 존경해서 선생님께서 끊으라고 말씀해주시면 끊겠다는군요." 간디는 잠시 소년을 바라보더니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보름 뒤에 아드님을 데려오십시오." 어머니는 간디에게 간청하며 다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아주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제 아들에게 설탕을 먹지 말라는 한마디만 해주세요." 간디는 다시 소년을 바라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보름 뒤에 다시 아드님을 데려오십시오."

너는 간청할 수 없었던 어머니는 약속했지만, 보름 뒤 아들을 데리고 다시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간디는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야아, 설탕을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니 먹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 설탕을 먹지 않겠노라 약속한 아들을 보며 고마운 뜻을 거듭 전하던 어머니는, 궁금한 것이 생각나 간디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보름 전에 찾아보았을 때 왜 보름 후에 다시 오라고 하신 건가요?" 간디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설탕을 좋아했습니다. 보름 전에도 설탕을 자주 먹고 있었기 때문에 설탕을 먹지 말라고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끊어야 했습니다."

가슴에 잔잔한 감동이 있습니다. 남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그렇게 먼저 너도 대접하라는 황금률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습관을 갖는다면 내가 먼저 모범이 될 것이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단어는 '존경'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양육'(Peideia)이라고 말합니다. 교육과 양육은 다릅니다. 교육(Pedagogy)은 가르치면 됩니다. 도둑인 아빠가 자기 아이들에게 "야아 도둑질은 참 스티릴고, 환상적인 직업이야. 너도 이 다음에 커서 아빠처럼 멋진 도둑의 삶을 살아봐, 참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도둑질해도 자녀들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교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은 다릅니다. 부모 된 우리들이 항상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 그 모습이 자녀들의 삶 속에 어느덧 녹아들어가 자녀들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게 됩니다. 양육입니다. 간디는 자기도 설탕을 즐기면서 자기를 찾아온 어머니와 아들에게 설탕은 건강에 좋지 않으니 먹지 말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디는 그렇게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기가 자기에게 설탕을 끊을 수 있는 시간, 보름을 줍니다. 그리고 그는 설탕을 끊은 후 보름 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찾아온 아이에게 설탕은 건강에 좋지 않으니 끊으라고 말합니다. 간디는 양육했습니다.

오늘날 나는 부정직하게 살아도 남들이 부정직하게 살면 손가락질하며, 정직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감동이나 영향력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정직하게 살고 함께 나누는 삶에 감동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부모의 삶이 바뀌지 않는 한 자녀의 삶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커간 자녀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몸보기를 너무로 성경을 보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커간 자녀들이 성경을 보게 됩니다. 앞치마 두르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커간 자녀들이 커서도 봉사합니다. 피스 메이커로 살아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커간 자녀들이 피스 메이커가 됩니다. 가끔 심방가면 엄마들이 "재는 누구 닮아서 저렇게 정신이 없어"라고 말하면 저는 속으로 "엄마 닮았지" 합니다. 보여주는 대로 자라나게 자녀들입니다. "또 아버지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엡6:4). 모세의 뒤에는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이 있었고, 사무엘의 뒤에는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고, 디모데의 뒤에는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있었고, 성 어거스틴의 뒤에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고, 웨슬레의 뒤에는 어머니 수산나의 신앙이 있었고, 링컨의 뒤에는 어머니 낸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주일, 어머니주일을 지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해 항상 안타깝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엄마, 아빠의 몸부림,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커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과 형통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엄마, 이런 아빠, 이런 자녀들,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pastor.eun@gmail.com

<b>미주크리스천신문</b> The Korean Christian Press		<b>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b> <b>편집국장: 유원정</b>
<b>L.A. Office</b>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net	<b>N.Y. Office</b>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 신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 생명의 성령의 법 신유세미나

- 일 시: 5월 3일-5일(화-목), 9일-12일(월-목) 2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4시)
- 장 소: 뉴욕신광교회 (33-55 Bell Blvd Bayside NY 11361)
- 문 의: 뉴욕 황동익 목사 (917)734-1026  
뉴저지 강유남 목사(551)655-4224

**회비: 무료(점심제공)**



**강사 이상관 목사**  
예장(합동)사랑의 빛교회 담임  
생명의 성령의 법 저자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 저자

**예수님은 모든 병든자를 치유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14: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열두 제자에게**  
마 10:1-7-8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8]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침실인에게**  
눅 10:1-9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막 16:15-17-18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 뱀을 밟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신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은사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는 모든 자녀들이 다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요1:12)

#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1면에서 계속)

연방 하원 대표 폴 라이언, 그리고 상원 대표 미치 맥코널 주도로 아이들을 따르는 정치인들은 연간 연방지원금(\$500Million)을 압박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동 법안이 발효될 수 있도록 서명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정상적이고 반인륜적인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현재 미국인들은 아마도 처음으로 인구 조절 정책으로 벌어지는 악몽의 실체를 절감하고 있다. 엘리트의 경고대로, 인구 조절이 시행된 지 47년이 지난 지금, 정작 문제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아니라 급락하고 있는 출산율이다. 기존 여성들보다 미혼 여성이 증가하고 있고, 출산율은 계속해서 곤두박질하고 있다. 만약에 이민이 없었다면, 미국은 문자 그대로 마이너스 인구 증가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낙태, 피임, 그리고 외과적 수술들을 통해 부모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자녀 조절을 손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많은 젊은 부모들에게 돈이 많이 들고, 귀찮고, 시간이 많이 들며, 그리고 키우기에는 너무 스트레스가 넘치는 애물단지가 됐다. 다른 젊은 부모들은 아예 자녀를 갖지 않는다. 바로 자유, 독립 그리고 개인적 성취가 우선시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이 자녀를 갖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처럼 결혼한 부부들 대부분이 아이를 원하지 않게 되면, 정말 심각한 결과로 이어진다. 얼마까지 않아 미국은 이제 "티핑 포인트(작은 변화들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쌓여, 이제 작은 변화가 하나만 더 일어나도 갑자기 큰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단계)"를 맞이하게 돼, 정말 회복이 불가능한 국면에 처하게 된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지점 즉 암떠러지에 거의 다다르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점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은 노인들이나 약자들에게 비해 상당히 많았다. 결혼적령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난 300년 동안 엄청난 출산을 주도했고, 이로 인해 인구 증가가 이뤄졌다. 반면에 대부분의 노인들은 비교적 짧은 수명을 가지고 있어 신생아들이 출산되기도 전에 사망했다. 따라서 인구 성장을 나타내는 상징은 바로 피라미드로, 젊은 세대가 피라미드 하부에 넓게 퍼져있고 나이순대로 상부 피라미드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역 피라미드를 보고 있다. 바로 피라미드 하부에 나이 먹은 사람들이 포진되었고, 올라갈수록 젊고 최정상에는 아이들이 자리 잡고 있다. 출산을 저하는 이미 유럽, 아

시아 일부, 중남미 그리고 도처에서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역 피라미드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작년에, 일본에서는 노인들이 다이퍼(diaper)를 아기들보다 많이 구입했을 정도고,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인구 성장을 급선무로 판단해, 아기를 출산하는 여성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은 결혼 적령기에 들어선 남녀 비율의 현격한 차이로, 공공연하게(?) 결혼적령기에 들어선 여성들이 부르는 것이 급감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프랑스, 독일,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들 역시 극적인 출산율 저하로 혼란에 들어선지 오래다.

만약 인구가 이대로 감소하게 된다면, 인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난관들을 조우하게 된다. 실제로, 2010년 부르킹스 재단은 중국이 직면한 "위기"를 정확하게 짚어준다. 국가 경제를 위해 일해야 할 근로 세대의 감소는 중국 정부의 예산 수행을 변경하게 만들었다. 즉 건강보험이나 연금정책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정부 예산이 고령화 세대의 대책과 거주지 마련을 위해 집행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장기화된 경제성장 정체는 바로 일본 인구의 고령화에 있다고, 동 재단의 보고서는 짚어주고 있다.

따라서 지구촌 전역에 만연된 마이너스 인구 성장의 쓰나미는 바로 살아가야 하는 노년층의 생

존을 위협하게 된다. 즉 은퇴 후 지급받아야 할 연금이 고갈되고, 의료보험마저도 무너지게 될 수 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기때,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1:28)고 명령한다. 물론 많은 여성들이 자녀를 키우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독신의 삶을 살아가고. 예외는 있다 그러나 동시에 세계의 출산율이 이미 흔들리고 있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며, 공공의 선을 위해서 그리스천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증거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기도해야 한다.

성경적인 명령 외에도, 상식선에서 이제는 정치가들이나 정부 기관들은 엘리트나 인구 조절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경고대신, 아기들을 낳고 키울 수 있는 부부들을 귀하게 대접하고 장려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를 낳아서 지구를 보충하는 부모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자녀는 바로 우리와 우리의 미래를 연결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이다!

#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는 사역의 장"

(1면에서 계속)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 하려고만 한다면, 예배 의식에 참여하기만 해도 된다.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고, 소그룹 사역을 하는 이유는 말씀을 지식으로서 아는 차원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차원으로 옮기기 위함이다. 그래서 소그룹은 말씀을 정기적으로 듣고는 있지만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사람들,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던 사람들, 알지만 실천하기 거부하던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제대로 알고 순종하며 실천하도록 변화시키기 위한 장이다.

매주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성

도라 하더라도, 파편화된 성경 지식, 의식으로서의 예배, 일상에서의 순종을 요구받지도, 피드백을



받지도 못하는 삶을 살다보면 성경이 그들의 인생의 교과서라는 말은 아무 의미도 없는 구호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의 정신이 그 사고를 형성하고, 성경의 훈계와 경험이 그

마음에 새겨져 자연스럽게 적절하게 삶에서 드러나야겠지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성도를 찾아보려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가르쳐 그 삶을 살도록 도전할 뿐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았는지 피드백을 하는 곳이 필요하다.

결론으로, 소그룹에서는 성경을 가르칠 뿐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를 나누고, 또한 모임에서 나누었던 바를 실천했는지를 이야기해, 지시와 피드백이 계속 반복된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삶을 예수께서 사셨던 원리에 맞춰가게 되고, 말씀이 삶의 원리가 되며 삶은 성경의 증거가 되는 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 "중국 공산당원들 종교 갖지 말라!"

(2면에서 계속)

사회주의만으로는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중원"이었던 중국의 영광을 지키기에는, 서구로부터 유입되는 물질들을 막기에 역

부족이라는 경각심을 신 지식인들이 주도하고 있다.

"취를 잡는데 검은 고양이건 하얀 고양이건 상관없다"는 실용주의적 개방 노선은 중국의 자

주, 자존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영향력이 없다는 위기의식으로 다시금 "신-유교주의"로의 회귀가 이루어지고 있다.

결론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은 사회 불균형, 공직자 부패 등 당면한 정치문제를 사회주의 체제

강화를 바탕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삼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변수가 발생하고 있다. 바로 사회주의 사상이나 체제가 가져다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는 종교 즉 하나님의 사랑에 중국 공산당원들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다!

# '시편' 은혜 나누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 시 139편. 감사의 시냇가에 생각의 장막을 치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없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완전히 소경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심자가 사건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많은 행성 중에 이 지구라는 땅에서 삽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으로 가는 것,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을 읽어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자연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두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은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공간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은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시편 139편에는 세밀하신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면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이 육체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관리하십니다. 우리 몸이 저절로 숨이 쉬어지고 눈이 깜박이고 귀가 들리고 음식을 먹으면 소화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능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서 눈을 열어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신묘막측한 우리 신체의 구조, 과학이 지금도 그 신비한 부분을 다 깨치지 못하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우주를 운행하신 같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혹으로 지은 이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따라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하시느냐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는 바로 내가 나를 만든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밤만 넣어주면 알아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속에서 영양분이 다 알아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다 분리하고 나누는 것입니까? 그것도 일년, 이년이나 그 몇십년을 그 기계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요,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요, 오늘도 살아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5절에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항상 돌보아주신다, 앞뒤로 두루 두루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항상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보배로운 자요, 너는 내 앞에 존귀한 자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그렇게 돌보시는지요. 우리를 지으신 이가 우리 몸을 다 돌보고 계심을 감사하며 믿읍시다.

10절부터가 이 모든 일에 결론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리고 11, 12절에도 "내가 비록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두움이 아니요"라고 합니다.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르는 것 없이 돌보고 지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각까지도 돌보아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들의 꽃들은 자연을 통해서 베풀어주시는 창조주의 은혜를 흠뻑 누리시고 나타내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존재를 세우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 분은 전지하신 분(1-6절), 어디든지 계시는 편재하신 분(6-12절), 전능하신 분(13-18절)이십니다. 그런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아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천국까지도 예비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필요를 얼마나 세밀하게 알고 계실까요? 거기에 대해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분의 사랑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sangdkim@yahoo.com

# 토론토 빌라델비아 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81년2월 창립 이래 35년간 목회해 오신 담임목사님 은퇴로 빌라델비아 장로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새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요건

- 장로교단 인정 정규 신학대학 이상을 졸업하신 분
- 목회 경력 5년 이상이신 분
- 35~50세 사이의 연령이신 분
- 한국어 영어로 목회가 가능하신 분
- 캐나다에 영주권 취득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제출처

- Pastor Nominating Committee  
Philadelphia Presbyterian Church  
8 Codeco Ct, North York ON  
M3A 1A2 CANADA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가족사진
- 본인소개서(신앙간증 및 목회 소명 과정 포함)
- 목회계획서
- 최근 6개월 내 설교 2회분 동영상
- 목사 안수 증명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 추천서(목회자 1인 및 평신도 1인)
- 서류는 우편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자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제출마감일 : 2016년 7월 15일
- 문의 : sdeogo@gmail.com  
청빙위원회 (647)287-5012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토론토 빌라델비아장로교회  
www.kppc.co.kr  
청빙위원회



###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 기다림과 기쁨

중국의 시사평론가인 장지엔핑이 쓴 "인생의 지혜가 담긴 111가지 이야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미국을 방문한 한 중국 여류작가가 뉴욕의 거리에서 꽃을 파는 노부인을 만났습니다. 낡은 옷을 걸

친 노부인은 몸은 매우 허약해 보였지만 얼굴은 자상하고 기쁨에 넘쳐 보였습니다. 여류작가는 꽃을 한 송이 고르며 물었습니다. 작가: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노부인: "왜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이토록 아름다운데요." 작가: "당신은 번뇌를 달관할 줄 아는가 보군요. 고통이나 고민에 대해 마음 편히 생각하는 재주가 있으신 것 같군요." 여류작가는 별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부인의 대답에 작가는 크게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 금요일은 전 세계의 가장 불행한 날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흘 후에 부활하셨어요. 불행을 만났더라도 사흘만 기다리면 모든 것이 회복될 거예요." 슬픈 일이 있을 때 사흘을 기다린다. 평범하지만 얼마나 철학적인 생활방식입니까?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을 당했을 때,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슬픔과 고

통 중에서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힘을 내서 기다리다가도 곧 지치게 되고, 문제가 빨리 안 풀리면 쉽게 좌절합니다. 낙심이 원망이 되고 마음에 분노가 쌓이면 영과 육에 병을 얻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고통이나 번민에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결론이 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고통의 끝을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다림은 피할 수 없는 필수 코스입니다. 언젠가 화랑에서 놀라운 풍경을 보았습니다. 누구의 발자국도 없는 데스캐리의 사막 한 가운데 돌맹이 하나가 물음표를 그

린 사진이었습니다. 이 환상적인 장면을 찍기 위하여 아마도 사진작가는 사막에서 살인적인 날씨를 견디며 오랜 시간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많이 기다렸기에 기쁨도 컸을 것입니다. 아기를 잉태한 여자는 10개월의 기다림 끝에 생명을 낳는 기쁨을 누립니다. 신앙도 기다림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아무 목적 없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기다림의 목적과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기다림을 포기하고 '우리'를 인도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신앙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다림입니다. '여호와를 믿고 기다리는 자가 새 힘을 얻는데 돌맹이 하나가 물음표를 그

Lord will gain new strength, 사 40:31). 지금 깊은 슬픔 가운데 있어서 힘드신가요? 십자가의 죽은 사흘 후에 영광의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고통의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리면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도 기다림을 평안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을 지낸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고통의 끝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림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그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시나요?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나요?

### 푸 / 른 / 초 / 장

이지용 목사  
(뉴욕 갯세마네 교회)



우리 그리스도교는 보상의 종교이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도다"는 말씀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면 눈물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보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였다. 심은 후에는 반드시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 시키신 후에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갚아 주신다.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해야 한다. 그래야 일한 후에 상급을 받는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했는가 살펴보아야 한다. 1. 주님의 종으로 일해야 한다.

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일꾼은 주인이 불러서 일 시켜 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요즈음 교회에 공사할 일이 있어 아침 일찍 노턴버러바드로 나가서 남미 친구들을 불러다가 일을 맡긴다. 노턴 거리에서 일꾼들은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맡기고

일의 크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생기기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해야 한다. 우리는 많던지 적던지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의 소유를 맡은 종임을 알아야 한다. 좋은 주인이 되려면 일해야 한다. 좋은 자기의 주장이 없다. 좋은 주인이 맡겨준 일을 순종해야 한다. 주인이 일꾼을 세우는 것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행하시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 주셨다.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서

의 성품도 더 깊이 알게 된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주인의 뜻과 어긋나면 일의 역사도 없고 상급도 없다. 일꾼은 항상 주인을 나타내야 되고 주인의 뜻을 나타내야 한다. 일꾼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인하여서 기뻐해야 한다. 일꾼은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일해야 한다. 세상 일꾼들도 좋은 일꾼은 자신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주인의 뜻을 따라 일하며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일한다. 좋은 고용인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한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꾼

것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다. 착하다는 것은 주인을 신뢰하고 주인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한 것이다. 충성은 지극히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끝까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반대로 책망하신 것은 악하고 게으른 것을 책망하셨다. 여기 악한 것은 주인을 신뢰하지도 않고 주인을 좋게 보지도 않았다. 심지어는 주인을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고약한 사람"으로 보았다. 게으른 것은 충성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하나님은 결코 이윤을 남겼다고 칭찬한 것이 아니고 이윤을 남기지 못했다고 책망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가 남기 이윤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했는가를 보신다. 하나님은 그가 남기 이윤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했는가를 보신다. 하나님은 결코 이윤을 남겼다고 칭찬하러,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이윤이 아니라 충성이다. "말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충성하지 않으면 책망을 받는다. 하나님은 결코 이윤을 남기지 못한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남기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셨다.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이윤을 남기게 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몫이다. 예수님은 심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헤쳐내는데서 모으시지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셨다. (9면으로 계속)

## 심은 대로 갚으시는 주님

(마 25:14-21)

여기 주인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좋은 예수 믿는 자들을 가르친다. 주인이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겨 주셨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가르친다. 우리의 생명, 건강, 재능, 시간, 물질, 일, 직분이 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들이다. 그러나 특별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달란트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 일, 사명을 강조하고 있다.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또는 한 달란트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각각 재능을 따라 일을 맡겨 주셨다. "나는 직분이 없었는가 받은 것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다.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순간부터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은 주님을 대신해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것이다.

좋은 자기의 것이 없다.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일에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과 일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시다. 일꾼은 이것을 철저히 알아야 하고 인식해야 하고 믿어야 한다. 결코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일꾼이요 종 된 자이다. 우리가 일꾼된 것이 결코 스스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이 원해서 되었는지 누가 시켜서 되었는지 궁극적으로 는 우리를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선택해서 제자들을 세우셨다. 예수님은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도 일꾼은 세우는 것이 주인이 일꾼 자신이 아니

시키는 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페인트칠하는 사람은 페인트칠을, 시멘트 일하는 사람에게 시멘트 일을 맡겨야 한다. 또 맡기면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시계만 보는 친구들을 종종 보게 된다. 나는 오늘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일꾼에게 일을 맡겨 주는 분이 주인이시다. 주인은 자기 그 재능대로 자신의 소유를 맡겨주신다고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재능과 능력과 은사와 믿음과 환경에 알맞게 일을 맡겨 주셨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많은 일을 맡았다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 적게 맡았다고 불평해서도 안 된다. 항상 나에게 가장 합당하게 맡겨 주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므로 일해야 한다. 일의 크고 적음이 결코 인간에 대하여 차별하신 것이 아니다. 차별은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셨다(요6:38). 예수님은 심지어는 자신이 택한 제자들까지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하셨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 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했다(요 17:6-7). 예수님은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은 더욱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 우리의 하는 그 어떤 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만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다. 좋은 일한 후에도 주인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좋은 자기 영광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좋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뿐이지만 좋은 주인은 일한 후에 상급도 주신다. 주님은 너무도 후하신 분이시다. 일시키신 후에 주님은 후하게 갚아 주신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에게 받은 상급은 칭찬 받는

2. 주님은 일한 대로 갚아 주신다. 좋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뿐이지만 좋은 주인은 일한 후에 상급도 주신다. 주님은 너무도 후하신 분이시다. 일시키신 후에 주님은 후하게 갚아 주신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에게 받은 상급은 칭찬 받는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 GRACE THEOLOGICAL SEMINARY

-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 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2016년 5월 졸업식

- 졸업식(Commencement Ceremony)**  
일시: 2016년 5월 7일(토) 오전 9시  
장소: Manahan Orthopaedic Capital Center (그레이스 대학 캠퍼스 내)
- 졸업 논문 발표**  
일시: 2016년 5월 5일(목) 오전 9시  
장소: William Male Center(신학교 건물)
- 총장주관 만찬(President's Luncheon)**  
일시: 2016년 5월 6일(금) 12:00-1:30 pm (졸업식 리허설 후)  
장소: Westminster Hall(웨스트 민스터 홀)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 성전환자(Trans-gender)에서 정상인으로 돌아온 사람이 밝히는 “성전환”의 아픔과 실체

지난 회에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을 하여 Laura라는 이름으로 8년간 살다가 자신이 그렇게도 간절히 추구하던 행복을 찾지 못하고 많은 고통을 겪다가 하나님을 만나 다시 남성으로 돌아온 Walter Heyer라는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성전환을 하는 것이 삶의 행복을 주는 것이 절대 아니며, 모든 성적 혼돈은 결국 심리적이고 정신적이라는 것을 자신의 경험뿐 아니라 의학적, 심리학, 사회 정치적 측면에서 조사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Walter Heyer의 이야기와 여러 성전환 전문인들의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Johns Hopkins University Gender Clinic의 발표에 의하면...

2014년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성전환자 중 62.7%가 적어도 한 가지 심리적 질환도 겪고 있었으며, 33%는 자살충동을 일으키는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이뤄진 또 다른 연구에서는 70%의 환자들이 한 가지 이상이 불안장애를 일으키는 Axis I 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하이오에 위치한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심리학과는 2007년에 10명의 다양한 성전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을 실행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90%의 환자들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심각한 심리질환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감으로 사회에 적응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10명중 2명의 환자는 그들이 감행했던 성전환을 심

의 경우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리치료를 그들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Walter Heyer와 성전환자들을 다시 정상인으로 되도록 도운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확신하며, 그에 따른 많은 증거자료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성전환 전문가들에 의하면, 애석하게도 많은 성전환자들이 미리 심리장애를 치료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전환자들의 대부분이 심리질환은 동반적으로 앓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의사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들의 치료를 막고 있다는 점입니다.

환수술이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성전환수술 옹호자들과 자유주의 정치인들은 성정체성 환자들의 심리치료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심리적 장애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치료를 통해 그들이 꿈꿔왔던 성전환에 대한 갈망이 없어질까 두렵기 때문이죠. 심리적 장애를 일으키는 그들의 상처는 맘 속 깊이 박혀 있으며 매우 심각한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따라서 이들을 도울 심리적 상담이 법적으로 사라질 때, 어릴 적 상처를 돌아보고 치유하기보단 성전환이라는 극단적인 ‘탈출’을 오히려 혼돈된 청년들은 선호하게 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Walter Heyer는 “ABC를 비롯한

### 성전환수술이 의학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없어 성전환자 대부분이 갖고 있는 심리적 장애치료가 더 바람직

1970년대 중반, 심리행동과학협회의 사무총장이었던 Paul McHugh 박사는 그 당시 클리닉의 원장이었던 Jon Meyer 박사를 통해 그동안 치료받아왔던 수 천명의 성전환 환자들의 결과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McHugh 총장은 아래와 같이 결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심리적으로 아주 약간의 변화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들은 인간관계나 직장 내에서 수술받기 전과 같은 문제들을 겪어야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소망은 이뤄지지 않았죠... 결론적으로 성전환수술은 그들이 원하는 심리적 행복을 줄 수 있는 의학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성전환수술은 환자의 심리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Paul McHugh 총장은 덧붙이기를, “사람들이 정치적 변화에 치우치지 말고 의학적으로 밝혀지는 사실들을 토대로 의술을 행하는 것이 의사의 의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 동성애와 심리적 요소의 관계가 사실로 밝혀졌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구결과에 따르면 거의 모든 성전환자들이 심리적 장애도 함께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하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인권보호라는 명목을 내세워 정부 각처에서는 동성애자들의 겪고 있는 심리적 장애에 대한 검사와 치료의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 바로 양심 있는 성전환수술을 하는 풀과 같은 의사나 심리학자들의 우려입니다.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의 결과는 이런 법적문제를 미리 예견하고 있었다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인권보호를 존중한다고 해서 그것이 심리적 검사와 치료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정체성 전문가들은 언론에 비취지는 소수의 좋은 모습보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집중해야 한다.”

Walter Heyer는 “정치는 의학과 융합되기 힘든 분야입니다. 정치적 요소가 의학에 개입될 때 희생양은 저와 같은 환자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행복을 찾고자 성전환을 한 사람들의 자살율은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성전환을 하고도 무려 40% 이상의 성전환자들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uicide.org 페이지에 따르면 90%의 자살이 심리적 장애를 치료하지 못한 결과라고 합니다. 60%의 성전환자들이 심리질환을 앓고 있으며 대부분

캘리포니아의 경우, 2012년 Ted Lieu(민주당) 의원에 의해 상담을 통해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를 돕는 심리상담(conversion therapy)을 더 이상은 못하도록 법을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그 당시 미국전역에서는 캘리포니아가 처음으로 이런 상담을 폐지시키는 주가 되었고, 기독교인들의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The National Center for Lesbian Rights 라는 동성애단체는 “Born Perfect Campaign(완벽하게 태어났다)”라는 캠페인을 걸고 미 전역에 캘리포니아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민주당 자유정치인들과 계속 연합하여 캠페인을 펼침으로, 지금까지 워싱턴, 일리노이즈 등 여러 주가 더 이상은 심리상담으로 성전환자나 동성애자들이 정상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예방/치료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50년간 성전환수술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수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의학적 요소들은 턱없이 부족하며 미국심리협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주최로 이뤄진 2012년의 성정체성장애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치료방향의 결정에 쓰여진 대부분 단서들 역시 그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100개가 넘는 국제 의학협회들에서 이뤄진 수술 후의 성전환자에 관한 연구를 종합해본 결과, 의학적인 측면에서 성전

환수술이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방송국들은 Bruce Jenner와 같은 성전환자들을 매력적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다른 성정체성 환자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장애나 자살충동이 안전하고 깊이 있는 심리치료를 통해 치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망각시킵니다. 정치적으로 적합해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된 연구결과들과 그동안의 사례들을 무시한다면 그들의 치료는 어려워지고 또한 자살도 방지할 수 없습니다. 90%의 자살이 심리적 장애에서 오며 대부분의 성전환자들이 심리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적합한 의학적 접근을 불비화한다면 그들의 치료는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들을 기반으로 한 치료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Walter Heyer는 “정치적인 요소의 개입은 자살을 방지할 수도 있는 이 세대를 위한 더 나은 치료방법의 발전을 방해한다. 그것은 그들을 향한 관용이 아니며, 그들의 목숨에 대한 무모한 무관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Walter Heyer는 그동안 성전환자를 돕기 위한 책들을 집필하고, SexChangeRegret.com을 운영하며 세미나강연들도 하고 있습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사도바울이 심혈을 기울여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의 교회들과 7교회가 있는 터키를 순례해보니 현재 기독교는 사라지고 전 국민 99%의 이슬람 국가로 변했는데 탄식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터키인들이 우리 한국민족과 형제국가라는 말이 있던데 알고 싶습니다.  
-토렌스에서 권영욱 권사

**A:** 터키인들은 기원전 2000년경에 지금의 몽고 외곽지역에 살았던 기마 유목민들인 우랄 알타이(Ural-Altaic) 족입니다. 터키인을 나타내는 튀르크는 돌궐족으로 ‘헨센’이란 뜻입니다. 돌궐이 한마디로 튀르크입니다.

우리 한반도의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시대에는 흉노족이 바로 이웃에 있었습니다. 흉노의 후예인 돌궐도 기마 민족의 문화를 받아들여 세워진 고구려와는 중국의 수와 당을 대항하는 긴밀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사기의 흉노전에는 한민족의 조상인 예맥의 기록이 있습니다. 예맥족은 만주 몽골계, 튀르크계들을 포함하는 같은 조상에서 갈라진 종족이라 할 수 있는데 부여, 고구려, 공예, 옥저에 이어 백제를 이룩한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 돌궐인 터키는 한민족 조상 예맥과 같은 조상 서남쪽으로 이동해 11세기에 현 장소에 정착

돌궐족 일부는 북동쪽으로 몽골과 만주를 거쳐 한반도와 일본에 정착하였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서남쪽으로 서서히 이동하여 옛날의 소아시아였던 아나톨리아 반도(현재의 터키)에 11세기부터 정착하고 서부아나톨리아의 이스탄불 부근의 셀주크 지역에 터전을 잡게 되었으므로 한국을 형제국가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궐이라는 한자어는 중국어로 튀르키즈로 읽으니 곧 터키가 됩니다. 이들이 중앙아시아를 떠날 때는 불교와 토착신앙을 신봉하였지만 아나톨리아 반도에 도착하여 정착하는 긴 과정에서 생존을 위해 현지의 종교와 관습을 따르고 적응하면서 이슬람을 받아들였습니다. 현재는 98% 이상이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한국이 터키를 응원할 때 쓰던 “투르키에 투르쿠 하이디 바스트로(터키인이여 돌궐하라)”는 우리가 같은 형제 민족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터키는 사도바울이 제 1차 선교여행 때에 남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여 교회들을 세웠고 그 교회들이 갈라디아교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의 수도인 터키의 에베소를 중심을 3년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7교회인 에베소, 서머나, 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 기독교가 이 지역에 편만하게 뿌리를 내린 곳이었습니. 그러다가 터키는 로마가 지배하여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주후330년 수도를 현 아스탄불로 옮기고 콘스탄티노플(Constantinople)이라고 이름을 명명하고 그 이후에 비잔틴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AD 330-1453). 그러다가 1453년 무라트의 아들 메호메트 2세는 동로마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공략하여 마침내 동로마제국을 점령 이후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오스만 제국의 수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콘스탄티노플이 이스탄불로 바뀌었습니다.

# 담임목사 청빙

책سن빌 한인장로교회는 확고한 믿음과 투철한 소명의식이 있고,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이민교회를 섬기기를 열망하는 담임목사를 모십니다. 저희 교회는 38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로서 미국장로교단(PCUSA) 소속이며, Florida주의 북부 중심 도시인 Jacksonville에 있습니다. (교회 사역소개서(Ministry Information Form)는 pcusa.org/clc 클릭 후, MIF ID: P0310739를 참조).

### 제출서류 (한글과 영문)

- PCUSA PIF
- 본인 및 가족 소개서 (2 Pages 이내), 가족사진
- 신앙여정과 신앙고백서 (각 2 Pages 이내)
- 목회비전 (각 2 Pages 이내)
- 신학교 졸업증명서, 목사안수 증명서(또는 졸업예정 일자와 CPM의 목사후보 증명서)
- 최근 6개월 이내 설교 CD/DVD 2개, 또는 동영상 주소
- 3명의 추천서
- 영주권 소유하신 분

- \* 제출 서류/자료는 비밀보장 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 1차 선정자에게는 보충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 현재 PCUSA 목사 또는 가입이 가능하신 목사  
· 정규 신학대학원 M.Div 학위 또는 그 이상 학력 소유하신 분  
· 한국어와 영어로 소통이 자유로운 분

**보내실 곳:** Billy Song (Email: billysongsos@gmail.com)  
Chair of the Pastor Nominating Committee  
4591 Ecton Lane E., Jacksonville, FL 32246



**책سن빌 한인장로교회** (전화: 904-355-9793)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Jacksonville**  
856 Margaret Street, Jacksonville, FL 32204  
Homepage: jaxkpc.org



## 총신 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 교육국 BPPE CODE 94874 (e)(1)인준학교

총장 이동규 박사

chongshinuts@gmail.com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el: (213)386-0300

(213)422-8916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교회 타월  
교회 티셔츠  
프린팅 및 자수  
광고배너  
교회배너 제작

www.dynamicsworld.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O TPKE, FLORAL PARK, NY 11001

## 힐링캠프 기도원



이선자 목사

섬과 회복이 있는 기도 동산.  
지친 일장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 주세요

Cell. (714)220-7660  
3026 W. Ball Rd. Anaheim, CA 92804  
jesussunja@gmail.com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라오스의 라오 푸안(LAO PHUAN)



라오스에 살고 있는 라오푸안족은 98,000명이 넘으며, 이웃국가인 태국에는 93,000명 정도가 살고 있다. 두 나라에 나뉘어 살고 있는 라오푸안족은 모두 푸안(Phuan)어를 사용하며, 푸안어는 디악(Diac) 언어군의 치앙사엥(Chiang Saeng) 방언에 속한다. 태국에서는 "라오푸안"이라는 말이 "이주한 라오인"이라는 뜻을 가지는데, 이는 라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그러나 라

오푸안족은 자신들만의 언어와 정체성을 가진 라오족과는 다른 별개의 사회적으로 두드러지는 특성을 가진 종족집단이다. 라오푸안족은 자신들이 타이족의 후예라고 주장한다. 13세기경, 타이족은 중국 남서부 지방에서 계속되는 중국인들의 압력으로 인해 태국지역으로 이주해왔다. 이들은 이동하는 여정 속에서 많은 민족과 문화를 정복했다. 1827년에서 1980년까지 많은 라오푸안인 전쟁포로들이 태국으로 강제로 끌려갔다. 그러나 라오푸안족의 주류는 여전히 라오스에 남아있다. 전쟁과 식민이 반복되는 역사로 라오푸안족 사회는 거대한 사회적 격변을 겪어왔다.

삶의 모습

라오푸안족 사람들은 푸른 계곡의 기름진 땅에서 쌀농사를 짓는 농부들이다. 관계용법을 사용하고 계단식 논에서 농사짓는다. 또한 일부는 산악지역에서 화전법으로 농사를 짓는다. 일부는 대장장이와 같은 다른 독특한 직업을 갖기도 하는데, 무역로와 가까운 마을 사람들이 더 그러하다. 이 지역의 새로운 도로건설 프로젝트로 시장으로 더 쉽게 갈 수 있게 되고, 더 불어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쌀농사를 짓던 농부들이 도소매 상인, 기술을 가진 직공, 공무원 등의 새로운 직업을 갖기도 한다.

라오푸안족은 한 계곡에 하나의 작은 마을 왕국을 이루어 생활한다. 각 마을은 "차오 무웅(chao muong)"이나 군주의 통제를 받으며, 평민들은 이들에게 조세의 의무를 갖는다. 마을의 재판은 일반적으로 마을 어른의 임피하에 따

를 수장에 의해 행해진다. 한 마을 안에서도 좀 더 부유한 라오푸안인들은 튼튼한 티크나무나 마호가니로 만들어진 집에서 산다. 이러한 가옥에는 땅에서 일정한 높이를 띄워 두꺼운 판자로 된 마루정과 기와지붕이 있다. 상대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이들은 대나무 뼈대 구조에 흙바닥에 초가지붕을 얹은 낮은 집에서 생활한다.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마을 사람들의 단합을 상징하고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절이다.

라오푸안족 사회에서 기본이 되는 사회적 단위는 가정이다. 이들의 사회구조가 "가부장적"이기는 하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균형 잡히고 화목하다. 성에 따른 노동의 구분은 거의 없다. 남성과 여성 모두 논밭을 갈고, 낚시질을 하고, 요리하고, 아기를 돌보고, 빨래를 한다.

일반적으로 라오푸안 사람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고 평화로운

편이다. 이들은 또한 검소한 생활을 하며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습관이 있다. 라오푸안족은 "공적을 세우는(merit-making)" 의식, 승려의 임명식, 결혼, 집들이 등과 같은 행사들을 주기적으로 한다. 태국의 방콕에서는 영혼들을 숭배하고 기념하는 "쌀자루 의식(ceremony of the rice packet)"이라고 불리는 큰 행사가 매해 행해진다.

신앙

태국의 라오푸안족 사람들이 주로 불교도인 반면, 라오스의 라오푸안족 사람들은 전통민족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다. 전통적 정령숭배 사상에 불교가 혼합된 신앙을 갖고 있으며, 영혼과 물체를 숭배하는 것을 통해 도움을 구하는 의식을 행한다. 이들은 "수호 혼(guardian spirits)"과 "지역 혼(locality spirits)"의 존재를 믿으며 이것들은 사회 속의 다양한 것

들과 동일시된다. 이들은 저주를 피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혼들을 잘 달래야만 한다고 믿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라오푸안족의 언어로 제공되는 기독교 자원은 전혀 없다. 두 개의 선교단체가 태국의 라오푸안족을 위해 사역하고 있지만, 라오스의 라오푸안족을 위해 사역하는 선교단체는 현재 없다.

라오푸안 여성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매춘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자녀들로 매춘행위를 하게 한다. 이 소중한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 사랑, 수용을 경험하게 되도록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이 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실제적인 방법으로 예수의 사랑을 이들에게 나타내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터키, 시리아에서 IS 대원 900명 죽였다"

터키가 올해 들어 시리아에 있는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대원 900명 가량을 죽였다고 밝혔다. 터키 관영 아나톨리아통신이 25일 군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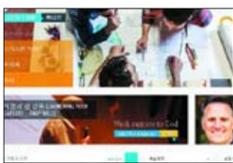
미국 주도의 IS 격퇴 작전에 참여한 한 군 소식통은 "터키가 올해 1월부터 포격과 공습으로 시리아 내 IS 대원으로 추정되는 900명 정도를 죽였다"고 말했다.

지난 1월9일 이후 터키군의 시리아 공습으로 "테러리스트 492명"이 사망했으며 시리아 내 IS 무기 저장고 등을 파괴한 포병 공격으로 다른 370명이 숨졌다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앞서 터키는 이스탄불에서 두 차례 발생한 자살 폭탄 공격 배후에 IS가 있다고 보고 작년 여름부터 시리아 내 공습을 개시했다. 터키는 또 미군 전투기가 시리아 내 IS 근거지 등을 공습할 수 있도록 자국 남부에 있는 공군기지 사용을 허가하기도 했다. 터키는 최근 시리아와 국경에 가까운 터키 남부 킬리스 지역에 시리아 영토로부터 여러 차례 박격 포탄이 날아오자 곧바로 보복 공습을 가한 바 있다.

인터넷 신학 웹사이트 '토우' 한국어 공식 서비스 개시

전 세계 16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만든 인터넷 신학 온라인 서비스 '토우(TOW·Theology of Work)'가 최근 한국



어 서비스를 시작했다.

토우는 일과 관련된 신학을 연구해 보급하기 위해 만든 프로젝트다. 미국 뉴욕에 있는 투자회사 '아르케고스 캐피탈 매니지먼트(Archehos Capital Management)' 앤디 밀스 회장, '일과 영성'의 저자 팀 켈러 뉴욕 리디머장로교회 목사, 일터 신학자로 유명한 폴 스티븐스 리전트칼리지 교수 등 138명이 참여하고 있다. 영어권에서는 기독교 직장인과 일터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잘 알려져 있다.

토우 한국어 서비스는 국내 일터 사역단체인 '페이스엔워크 인스티튜트(대표 김은희)'가 맡았다. 김은희 대표는 "토우가 제공하는 일터 신학 콘텐츠를 비롯해 한국 실정에 맞는 일터 신학 자료와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서비스하기 위해 토우 한국어 사이트(theologyofwork.org/ko)를 공식 개설했다"고 말했다.

토우 한국어 사이트는 일과 관련된 '성경 주석'과 관련된 콘텐츠를 글 사진 오디오 비디오 등으로 제공한다.

성경 주석 코너에선 '사회 자본의 필요성(학1:1-2:19)' '부(富)로 인한 무관심(암3:9-15, 6:1-7)' '불의한 방법으로 일하는 것(호4:1-10)' 등 관련 성경 구절과 해설을 제공한다. '예금자와 채권자' '적정한 금액의 채무' '공급하심을 늘리고 가난을 줄이려면' 등 평소 직장인들이 일과 관련해 고민하는 주제를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설명하는 코너도 있다.

두 코너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아래에는 '댓글' 기능이 있어 온라인상에서 해당 주제를 놓고 토론할 수도 있다. '추천' 기능을 통해 콘텐츠를 공유할 수도 있다.

토우 한국어 사이트는 필요한 주제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세부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창세기 출애굽기 등 성경의 각 장별로, 갈등 경쟁 경제 사회 금융 등 주제별로 검색이 가능하다. 모든 콘텐츠에 '가난' '가난의 이유' '가업' 등 태그가 달려있어 태그별로도 찾아볼 수 있다.

김 대표는 "직장에서 하나나 나라를 성취하려는 그리스도인 직장인을 격려하고 이들을 도우려는 목회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힐러리 인기 갈수록 하락, 11월 본선에서 위험"

힐러리 클린턴이 19일 뉴욕주 경선에서 승리함으로써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될 것이 거의 확실해졌지만 갈수록 그의 인기가 하락하고 있어 11월 본선에서 위험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설에서 지적했다.



WSJ는 최근(10-14일) WSJ와 NBC 뉴스가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결과 클린턴에 대해 다소 또는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유권자 비율이 기록적인 56%를 나타냈으며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유권자는 3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WSJ는 지난 2013년 클린턴이 오바마 정부에서 사임한 직후 그에 대한 부정적 견해 비율이 25%였으나 그 비율이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점이 충격적이라고 분석했다.

클린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지난해 중반 40%에 달한 후 올 2월에는 50%를 기록했다. 4월 들어서는 특히 42%가 클린턴이 백악관에 임성하는데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인기 하락은 선거전 중 흔히 나타나는 후보 간 격렬한 공격 때문이기도 하다. 경쟁자인 버니 샌더스는 클린턴의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들을 비켜갔으나 클린턴이 대형은행들의 '앞잡이'라는 이미지를 중점 부각했다.

WSJ는 그러나 클린턴이 지난 1992년부터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등장해 그녀의 정치적 정체성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바뀌기는 힘들다는 점이 민주당에 유리스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만약 공화당이 부정적 견해가 65% 달하는 도널드 트럼프 등을 제외한 적당히 수용

할만한 후보를 선택할 경우 11월 대선에서 다시 백악관을 탈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WSJ는 전망했다.

포르노는 '공중보건위험물'...유타주 특별규제

모르몬교(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성지' 격인 미국 유타 주가 포르노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MSNBC 방송은 19일 제리 허버트 유타 주지사가 포르노를 '공중 보건 위험물'로 지정하는 주 의회 결의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허버트 주지사는 서명식에서 "우리의 청소년을 유혹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음란물을 마약과 알코올에 비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그는 이어 "젊은이들이 특히 포르노 중독에서 오는 심리적인 생리적인 손상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타 주 의회는 지난해 포르노와 싸우기 위해 공동체·사회적 수준의 교육, 예방, 조사, 정책 변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토드 와일러(공화) 주상원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 자체에 강제력은 없으나 무료 와이파이 존에서 포르노 접근을 제한하는 등 공동체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도서관이나 백도날드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담배를 판다면 당장 피켓 시위를 하는데 정작 아이들이 태블릿으로 포르노를 접하는 건 괜찮은 식이라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의안과 관련해 이동성 동영상도 보고도 신고하지 않는 컴퓨터 기술자들을 최대 징역 6개월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이 발효됐다. 모르몬교 신자가 많이 사는 유타 주는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 중 하나다.

한편 유타 주는 지난 2009년 허버트대의 조사에서 미국 50개 주 가운데 온라인으로 성인 동영상상을 가장 많이 보는 주라는 전혀 다른 '두 얼굴'을 보여준 적도 있다고 MSNBC 방송은 소개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 제 38회 해외총회 소집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Overseas(Hap-Dong)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각 노회와 본 총회 총대원 여러분 배후에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총회 소집을 공고하오니 성 총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 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
- 일 시: 주후 2016년 5월 23일(월) 오후 4시 - 25일(수) 12:00 까지
- 장 소: 주 예수 사랑 교회(강유남 목사 시무)  
1155 Hendricks Cswy Ridgefield NJ 07657  
(551)655-4224, (201)941-5555

○숙 소: 총회장소 인접 힐튼호텔

- 참 고: (1) 각 노회 총대는 총회전까지 명단과 현의 건을 보내주시 바랍니다.
- (2) 회비 \$100, 부부동반 \$150
- (3) 숙식은 총회에서 부담하며 숙소는 도착 순으로 배정함
- 유의사항: 기착공항은 New Wark Airport 로 하시고 도착시간을 알려주시면 안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연 락 처: Tel.(714)321-4678, Tel(551)655-4224

주후 2016년 4월 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 해외총회

The General Assembly of Overseas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총회장 엄기환 목사  
서기 임균만 목사



# 고난의 신학: 고통에 대한 묵상 (10)

이승현 박사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총장)



## 고난의 윤리학(The Ethics of Suffering)

고난의 신학으로 시작한 고통에 대한 묵상을 나는 고난의 윤리학으로 마치고자 한다. 어쩌면 고난의 신학이 있기 전에 고난의 윤리학이 앞서야 할지 모르겠다. 임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유대인 철학자는 윤리학이아말로 모든 의미의 기원이라고 하였다. 유대인들의 대학살이라는 참혹한 역사적 증언 앞에서 고난의 의미나 신정론을 논하는 것은 아무런 뜻이 없으며 오히려 무고하게 죽어간 이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고통을 왜곡하며 폄하하는 어리석은 노력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의 무의미 가운데서 다른 이가 겪고 있는 무의미한 고통을 자신이 짊어지는 것만이 자신의 고통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신학에도 옳은 신학과 그릇된 신학이 있는데 나는 이것의 기준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지 아니면 생명을 파괴하는 것인지에 있다고 생각한다. 회오리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엘리바스에게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중 옳의 말 같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하

신다(42:7). 여기에서 "옳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세워지다, 변함없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로 "믿고 의지할만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옳은 친구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변호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들의 God Talk가 그릇되었다고 판단하신다. 나는 그 이유가 친구들의 God Talk가 고통 받는 고통에 대한 신의를 버린 책임감이 없는 신학이었기 때문이 아닌지 생각해본다(예로 19장 21-22절). 친구들은 옳은 고통을 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두려움에 싸여 "죄인"인 고통에 편에 서기보다는 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였던 것이다.

고난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함께 그 고난(자신의 고난이던 남의 고난

이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갈 의무가 있음을 알려준다. 우리는 친구들의 God Talk가 신학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하더라도 고통에 대한 책임을 진 신학이 아닌 오히려 고통에 책임을 전가한 신학이라는 데에 그릇됨을 찾을

수 있다. 비슷한 예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은 그들이 갖고 있는 거룩 또는 정결에 대한 신학을 통해서 알만하지 않지만 오히려 정당한 할 수 있지만 그 신학이 죽어가는 형제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이웃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저버리게 하는 신학이라면 그 신학은 한계점에 도달한 신학으로서 개혁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정결에 대한 "올바른" 신학을 비록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웃에게 사랑과 온정을 베푸는, 책임을 지는

사마리아인의 삶이아말로 고난의 윤리학의 기본적인 자세라 할 수 있었다.

고통과 아픔은 고통과 아픔을 당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또 그들은만이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다른 이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고전1:4). 고통은 고통을 통해서 옳이 어떻게 당대의 의인에서 위로를 베푸는 자로 변하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옳은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하고 자기 자신의 고난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하나님께 전가하거나 탓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자기가 할 말과 행동이 무지에서 나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한다(42:3).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옳에게 친구들이 제사를 드릴 때 고통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올리라고 말씀하신다(42:8). 옳이 친구들을 대표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다. 고난 전에 드리는 옳의 제사는 자기 자녀들의 안전

금 그들을 용서하고 옳 자신이 회복되기를 원하신 것이다.

옳이에서 나타나는 고난의 "의미"는 임마누엘 레비나스의 말처럼 이웃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며 고통 아픔에 책임감을 가지고 고통을 위해 사는 삶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개념적인 고난의 이해가 고난을 이기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옳은 남을 위한 삶이 회복의 시점이라고 말한다. 고난은 우리 육체의 삶의 한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무한한 우리 자신을 위해 매일 매일 사는 삶에 소망과 의미가 없고 우리 자신을 버려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초점을 맞출 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옳이에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왜 옳이 고난을 당하였는지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또 친구들을 위한 중

복받았다. 여기서 우리는 회복이라는 결과에 중점을 두는 목적론적인(teleological) 윤리학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 윤리학에 참으면 고난의 결말이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응보론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옳의 고난으로부터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자녀들을 잃은 아픔이 또 다른 자녀를 얻는다고 해서 완전히 극복될 수 있을까? 회복의 길은 평생을 통해 걸어야 하는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은 자기와 같이 고통 받았던 그리고 고통 받고 있는 이들과 걸어야 하는 길이다. 옳의 삶 후반부 기록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부분은 그가 자신이 받은 세 딸들에게도 아들들과 같이 유산을 남겨주었다는 대목이다. 아들들만 유산을 남겨주는 고대동풍 습에도 불구하고 딸들에게도 그 권리를 주기로 한 옳의 결정은 고대 동풍에서 떨치고 따돌림 당함을 경험한 옳이 그 당시 무시받던 여성들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연민을 갖게 했다는 증거이다.

옳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그 분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고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 나의 책임으로 여기며 오늘도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준다.

(끝)  
james.lee@itsla.edu

## 예수님의 예표인 옳 통해 '남을 위한 삶이 회복의 시점' 알려줘 딸에게도 유산 남겨 당시 무시당하는 여성에 관심과 연민 갖게

과 보호를 비는 기본적인 제사였다면 고난 후에 드리는 옳의 기도는 친구들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비는 중보의 도구로 사용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옳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위신을 다시 세워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옳과 친구들로부터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옳고 그름을 따져 옳은 이의 손을 올려주시기보다는 그들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옳의 말이 친구들의 말보다 옳다고 생각하셨을지라도 옳이 친구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옳으로 하여

보의 기도를 통해 옳을 회복시키신다. 옳이 42장 10절은 옳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옳을 곤경(히브리어는 "포로")으로부터 돌이키셨다고 말한다. 친구들의 회복이 옳 자신의 회복보다 앞선 것이다. 아프고 상처받은 이가 자신보다 더 건강한 이를 위해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를 통해 자기 자신이 회복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다. 고난의 윤리학이 고난의 신학을 대체하는 순간이다.

옳의 결말은 해피엔딩이다. 옳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되찾고 잃어버린 것들의 두배로 축

복을 받았다. 여기서 우리는 회복이라는 결과에 중점을 두는 목적론적인(teleological) 윤리학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 윤리학에 참으면 고난의 결말이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응보론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옳의 고난으로부터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자녀들을 잃은 아픔이 또 다른 자녀를 얻는다고 해서 완전히 극복될 수 있을까? 회복의 길은 평생을 통해 걸어야 하는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은 자기와 같이 고통 받았던 그리고 고통 받고 있는 이들과 걸어야 하는 길이다. 옳의 삶 후반부 기록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부분은 그가 자신이 받은 세 딸들에게도 아들들과 같이 유산을 남겨주었다는 대목이다. 아들들만 유산을 남겨주는 고대동풍 습에도 불구하고 딸들에게도 그 권리를 주기로 한 옳의 결정은 고대 동풍에서 떨치고 따돌림 당함을 경험한 옳이 그 당시 무시받던 여성들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연민을 갖게 했다는 증거이다.

옳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그 분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고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 나의 책임으로 여기며 오늘도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준다.

(끝)  
james.lee@itsla.edu

### 그게 그런 뜻이었어? - 성경의 압축과일 풀기 (31)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언합동교회 담임)

#### 솔로몬이 구한 것이 정말 지혜였을까?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다. 어떤 소원을 가지고 일천 번제를 드렸을까?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셨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일천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감사해서 드린 제물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이고, 그에게 소원을 물어보셨던 것이다.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구하는 것이 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정말 솔로몬이 구한 것이 지혜였을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일까?

개역한글에는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다고 되어 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다고 되어 있다.

왕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왕상3:9).

그러나 개역개정에는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주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지혜로운 마음과 듣는 마음은 의미상 많은 차이가 있다. 어떻게 된 것인가?

히브리어로는 레브 쇼메아(lev shomea)라고 되어 있다. 직역하면 '듣는 마음'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지혜로운 마음'으로 옮겨진 성경을 사용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이었다. 그가 구한 것은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철하고 명석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었다.

그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했을까? 그는 왕이었다. 왕으로서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고, 사리 판단을 잘해서 바른 길로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것이다. 왕으로서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재판도 해야 하는데,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말을 잘 듣고 바로 판단하고 판결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이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다른 축복들도 덩어리로 받았던 것이다.

왕이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지 아니하면 나라를 잘 이끌 수가 없다. 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잘 듣는 것이다. 잘 듣고 바로 판단하고 바로 결정하는 것이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이었다. 어리석은 자는 들어보지도 않고 판단한다. 잠언(18:17)에도 피고의 말을 들어 보기 전까지는 송사자의 말이 옳은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듣기도 전에 말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것이다.

교만한 자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지혜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잘 듣는 것이다. 잘 들어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잠언에는 "내 아들이여, 들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온다. 지혜는 들음에서 나온다.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지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 들이란 주고 돈 버는 사람이 있다. 카운슬러들이다. 잘만 들어줘도 환자들이 치료받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지도자는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부모는 자녀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듣는 마음', 다시 말해 '들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들을 귀'가 있어야 한다. 솔로몬은 바로 이것을 구했던 것이다.

jinhlee1004@yahoo.com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기타지역 교회

<p><b>갈보리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조웅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요찬양예배: 오후 7: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b>몽고메리교회</b></p> <p>담임목사: 최혜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요찬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www.kppcusa.org</p>	<p><b>벅스카운티장로교회</b></p> <p>담임목사: 김종운</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침 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b>벤엘교회</b></p> <p>담임목사: 백신종</p> <p>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461-1235, Fax. (410)461-8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p>	<p><b>보스턴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전덕영</p> <p>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회: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영, 유, 위, 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b>샬롯장로교회</b></p> <p>담임목사: 나성균</p> <p>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요찬양예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p> <p>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b>새시온침례교회</b></p> <p>담임목사: 정용교</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p> <p>Tel. (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p>	<p><b>시애틀평양장로교회</b></p> <p>담임목사: 박은일</p> <p>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주요찬양예배: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p> <p>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usa.org</p>	<p><b>안디옥교회</b></p> <p>담임목사: 강준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ychurch.org</p>	<p><b>알칸사 제자교회</b></p> <p>담임목사: 전남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rbc.org</p>	<p><b>앵커리지델린교회</b></p> <p>담임목사: 유제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새벽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b>엘파스델린교회</b></p> <p>담임목사: 하태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p> <p>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b>영생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이용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새벽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p>
<p><b>킬린온누리교회</b></p> <p>담임목사: 김성현</p> <p>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저녁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p> <p>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letranz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p> <p>담임목사: 한세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b>주에스교회</b></p> <p>담임목사: 배현찬</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35</p>	<p><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p> <p>담임목사: 박장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주일 2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4부예배: 오전 11시 15분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화-토)</p> <p>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kcc.org</p>	<p><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p> <p>담임목사: 조진모</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원어예배: 오전 2:00 주일새벽예배: 오후 7:45 수요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 리더십 코멘터리 (15)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 위기시대를 자신감으로 돌파하라

위기시대 리더의 가장 큰 도전은 자신감

현대는 위기가운데 신음하고 있다. 교회와 사회 모두가 위기 속에 빠져있다. 영어의 위기(crisis)는 그리스어의 '크리시스'에서 유래하였다. 위기(危機)는 위험(危險)과 기회(機會)의 합성어인데 안전, 경제, 정치, 사회, 환경 등의 측면에서 개인, 조직, 지역 사회 또는 사회 전체에 불안정하고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돌발적인 사건을 말한다.

위기 상황에서 리더의 가장 큰 도전은 구성원들을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우리의 조직을 위해 분명히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모두 공유할 수 있을 때 상처는 회복되고 위기는 극복되는 것이다.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혼란에 빠진다. 이럴 때일수록 리더는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위기에 맞서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는 깨끗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리더의 역할과 자세이다. 교회와 사회에서 리더의 이러한 대처 능력은 위기 상황에서 성도들과 구성원들을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지대가 되어준다. 리더의 솔선수범이 없는데 성도들과 구성원들이 리더를 따라줄 리 없다. 그래서 리더의 용기와 자신감 표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기 극복의 출발점은 마음속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것이다. 리더십이란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활력과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자신이 믿지 않는 물건을 고객에게 팔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이 신봉하지 않는 승리 마인드를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는 없다. 폭풍이 거세더라도 이를 무릅쓰고 배가 항해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리더가 소신을 보여줘야 한다. 결단을 촉구하고 모든 관계자가 희망을 갖고 나아가게 하는 것이 폭풍의 위기 앞에서 리더가 자신감을 갖고 보여줘야 할 일이다.

위기 가운데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왜 낙심하고 실망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는가? 그것은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다. 리더에게 자신감을 가로막는 낙심이 가장 큰 적이다. 목회자에게도 낙심이 문제가 된다. 사업가, 셀러맨, 연예인, 정치가도 모두 그렇다. 가정의 아버지들도 자신감을 잃을 때 고개 숙인 아버지가 된다. 가장으로서 자신감이 없고, 사회생활에 자신감이 없고,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다면 절망상태가 되고 병적인 사람이 되고 결국 폐인이 되고 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다 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고민과 문제가 많다. 사람들은 삶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할 때 대부분 그 원인을 외부적인 환경, 예를 들면 물질적인 문제나 건강적인 문제 같은 것에서 발견하

려고 한다. 그러나 삶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돈이나 명예, 권력적인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의 여부에 있는 것이다. 과연 리더가 자신감을 가지고 교회와 직장과 세상을 이끄느냐 아니면 자신감 없이 끌려가느냐에 따라서 리더로서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되느냐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바위가 아무리 강하고 커도 삼십년 동안 그 강한 바위를 정을 가지고 쪼개면 그 속에서 물이 나온다”는 속담이 있다. 이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자신감을 가지고 그 문제에 부딪치면 반드시 그 문제의 해답이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얼마나 문제가 많은 시대인가? 그러나 조직을 이끄는 리더로서

## 리더의 용기와 자신감 표출은 불안한 공동체의 지지대 역할 하나님 말씀이 영적리더에게 믿음과 확신, 자신감 갖게 해

의 우리의 자신감의 여하에 따라 그 문제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턴은 어느 날 아프리카를 횡단하다가 야수에 게 물려 빈사 상태가 되었다. 그를 따르던 종이 죽기 말라고 울부짖었다. 그러자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나는 결단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일을 다 하기까지 나는 결단코 죽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그 이후 리빙스턴은 여러 해를 더 살면서 아프리카의 복음화를 이루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사느냐 자신감 없이 사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생애는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크리스 마법의 성공에 대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성공한 사람의 공통된 특징 가운데 첫 번째 특징이 자신감이다. 바로 이 자신감이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큰 힘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남의 성공만 부러워하고, 자신의 나쁜 환경을 탓하며 삶을 슬퍼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졌다 하더라도 절대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는 불쌍히 여기사도와 주옵소서” 이를 두고 루터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신앙의 퇴보’라고 주장했다. 또 어떤 신학자는 겸손을 가장하고, 자신감이 결여된 불신앙의 말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말로 표현되었다고 주장한다.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하느냐 불신앙의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속에 자신감이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마가

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교훈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신감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자신감 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식의 인간적인 의지의 발로에서 나온 자신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자신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의 마음속에 자신감을 가득 채워 주시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 자신감이 없는 리더들이 있다. 왜 그런가?

첫째, 영적리더로서 생활이 시달리게 되면 자신감을 잃어버린다. 생활고에 시달리면 자신감을 잃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에 마음이 막혀 결실치 못한다고 교훈하고 있다. 둘째, 영적리더로서 참된 믿음이 없을 때 자신감을 잃어버린다. 마음속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적인 문제에서 연유되는 것을 본다. 자신감을 갖는 것이 리더에게 중요하다. 자신감은 인간의 의지의 산물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믿음으로 주신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에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열매를 맺어 나타나는 결과가 자신감으로 생활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자신감이 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영적인 생활이란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될 것 같지만 주님을 믿고 결과를 체험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 때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 확신이 바로 자신감이다. 영적리더에게 믿음이 살아 있어야 확신과 자신감이 생기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주신 이 자신감은 말씀과 기도로 생긴다. 마가:23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바로 미국의 33대 트루먼 대통령을 만들었다. 트루먼 대통령은 어린 시절 공부도, 운동도, 음악도, 미술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만년 꼴지의 학생이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의지하였기에 미국의 33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리더를 위로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며, 은혜도 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꾀로써 골수를 찌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니”(히:4:12). 바로 이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리더에게 믿음을 주고 확신과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는 영적리더가 되어야 한다. 바울이 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딤후1:7)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영적리더 모두에게 자신감을 주실 것을 믿는다.

sondongwon@gmail.com

# 성품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 “사춘기 부모 될 준비 되셨나요?”

“요즘 아이들은 사춘기도 유난스러워.” 사춘기 자녀를 둔 엄마들의 스트레스는 고민을 넘어 두려움 수준이다. 대체 요즘 아이들의 사춘기 증상이 어떠한가에 엄마들의 고민이 어차림 같을까? 요즘 사춘기 자녀들의 행동 유형들을 살펴보면 다음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연예인이나 게임에 빠져 있는 아이들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소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좋아하는 가수의 동영상과 그들과 관련된 상품에 집착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게임에 빠진 경우에는 그만하라는 주의를 듣고도 오히려 ‘간섭하지 말라’며 반항하기도 한다. 그 원인은 ‘외로움’에 기인한다. 게임도 마찬가지로. 외로움의 정도가 높을수록 게임을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 국내외 연구들을 통해 밝혀졌다.

둘째, 비싼 브랜드에 집착하거나 예쁘고 잘생긴 외모에 집착하는 경우이다. 이런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도 누구나 가지고 있다면 비싼 신발, 명품 아웃도어나 지갑, 가방 등을 갖고 싶어하거나 심지어 성형수술을 시켜달라고 부모를 조르기도 한다. 이 유형의 원인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과시욕’이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면서 타인에게 ‘있어 보이고 싶어’한다.

셋째, 이상은 높지만 현실은 그저 무기력하지만 한 아이들이다. 부모는 안타까운 마음에 부지런히 노력하도록 타이러노지만 별 소용이 없다. 이 유형의 원인은 단순히 ‘머리는 좋는데 노력을 안해서’가 아니다.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부모와 교사의 보호 속에서 성공하는 기쁨을 주로 느끼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특히 사춘기가 되면 다양한 실패를 직면하게 되는데 이때 실패 경험이 없는 아이는 절망감을 극복하기 어렵다. 필자는 유별스러운 사춘기의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성품대화를 제안한다.

첫째, 경청의 성품으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 경청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인정해주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이다. 경청하는 부모가 되어 아이들이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대화 상대가 되어주자. 그러면 외로움을 덜어주는 멋진 부모가 될 수 있다.

둘째, 기쁨의 성품으로 자기중심적 사고와 과시욕을 개선할 수 있다. 기쁨의 성품을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이다. “너는 소중한 엄마 아빠는 너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한다”라고 말하면서 자존감을 키워주자. 물질과 외모를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부모만큼은 자녀들의 진정한 자존감을 채워주는데 힘써야 한다.

셋째, 실패가 두려워 노력하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긍정적인 태도의 성품이 필요하다. 현실이 아니라 대학과 심리학과 교수인 마틴 셀리그먼 박사는 긍정적인 사람은 실패는 일시적이며 특별한 상황에 한정된 것으로 노력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실패를 이겨낼 확률이 크다고 말한다. 따라서 자녀가 실패했을 때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말을 해주면 좋다.

“엄마는 네가 어떤 시험기간 동안에 노력한 걸 알고 있단다. 네가 노력한 것들이 다음 시험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시험계획을 잘 때 어떤 점을 더 보강해야 할지 생각해 보자. 다음번에는 더 잘 할 수 있을 거야.”

어차피 닥치는 사춘기. 사춘기를 겪을 자녀들에게 ‘성품대화’로 먼저 다가섬으로써 자존감과 자신감을 세워주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 같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p><b>뉴욕부클린제일교회</b></p> <p>담임목사: 이윤석</p> <p>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45 새벽기도: 오후 8:45 세례기도: 오전 5:30 성경공부: 화, 토 오전 10:00</p> <p>Tel: (718)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 FKGB,ORG</p>	<p><b>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b></p> <p>담임목사: 김해천</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718)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p><b>뉴욕새벽별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정기태</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es@yahoo.com</p>	<p><b>뉴욕새사람교회</b></p> <p>담임목사: 이종원</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461-2810(Fax: 경음)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p><b>뉴욕새생명장로교회</b></p> <p>담임목사: 허윤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일(새벽)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637-1470 45-50 162 St, #2F, Flushing, NY 11358</p>	<p><b>뉴욕순복음안도교회</b></p> <p>담임목사: 이만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일(새벽)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718)461-7835, Cp: (718)938-1777 45-8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gitchurch.org</p>	<p><b>뉴욕초대교회</b></p> <p>담임목사: 김승희</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YM영양예배: 오후 1:30 최고성경공부: 오전 10: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30 금요일기도: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p> <p>Tel: (347)502-2571, Fax: (347)502-2570 210-10 Horace Harding Exp, Bayside NY 11364 http://nyccchurch.org</p>
<p><b>뉴저지성도교회</b></p> <p>담임목사: 허상희</p> <p>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p> <p>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p>	<p><b>리빙스턴교회</b></p> <p>담임목사: 유상열</p> <p>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후 2:00 영양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8:30 수요 찬양예배: 오후 8:30</p> <p>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p>	<p><b>에벤에셀선교회</b></p> <p>담임목사: 최창섭</p> <p>주일예배: 오전 10:45 주일찬양예배: 오전 1:00 주일중주예배: 오후 1:00 주일스튜디오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718)750-5858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http://emcny.us/</p>	<p><b>예사랑교회</b></p> <p>담임목사: 손한권</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347)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p>	<p><b>퀸즈천교회</b></p> <p>담임목사: 김성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1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o.org</p>	<p><b>퀸즈안인교회</b></p> <p>담임목사: 이규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1:30 NCF영양: 오후 1:30</p> <p>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ny.org</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원을 찾습니다</b></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은...</p>
<p><b>한마음침례교회</b></p> <p>담임목사: 박마이클</p> <p>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516)277-1103, Cell: (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ak@gmail.com</p>	<div style="text-align: center;"> <h2>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2> </div>			<p><b>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b></p> <p>담임목사: 김성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베드로의 잔: 오전 10:00(월-토) 금요기도회: 매일 새벽 7:00 금요영양: 오후 7:30</p> <p>www.pccv.org E-mail: hanmikr@hotmail.com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p><b>브라질 서울교회</b></p> <p>담임목사: 하경남</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p> <p>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n Pizar, 281 Cambuci S. Paulo Coo 01528-010</p>	<p><b>브라질 한인교회</b></p> <p>담임목사: 한봉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포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p> <p>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p><b>브라질 새소망교회</b></p> <p>담임목사: 박재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5:00 주일 6부예배: 오후 7:00</p> <p>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p>	<p><b>아르헨티나 제일교회</b></p> <p>담임목사: 최광연</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114-631-1788 AV. CARA 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p>	<p><b>칠레 한인연합교회</b></p> <p>담임목사: 왕익상</p>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호브기도회: 아침 7:40 월, 초, 중, 고등예배: 오전 9:30(주일) 오전 9:30(주일)</p> <p>Tel &amp;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p><b>토론토 가든교회</b></p> <p>담임목사: 정관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p><b>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b></p> <p>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선교회 회장</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8:00 주일 4부예배: 오후 1:00 (1, 2, 3, 부스대니터 설교)</p> <p>Tel: (595)251-574-985 E-mail: hanjkn@hanmail.net Cervantes NC, 1001, Asuncion-PARAGUAY</p>	<p><b>하와이 행복교회</b></p> <p>담임목사: 이남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p><b>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조일구</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비전케어서비스 미주서부 & 화랑라이온스클럽 주최 제6차 아이캠프가 LA총영사관에서 열렸다

### 시력 불편자 100명에 시술 비전케어서비스&화랑라이온스클럽 주최 6차 아이캠프

비전케어서비스 미주서부(지부장 서영석 장로)와 화랑라이온스클럽이 주최한 제 6차 아이캠프가 23일(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LA총영사관에서 열렸다. LA 총영사관 주차장과 1층 민원실에서 진행된 사랑의 무료 아이캠프에는 조성진, 리사황 전문의 등 2명의 한인 안과의사가 참여해 백내장 및 기본 안질환 검사를 제공했으며 간호사협회는 혈압 등 내과 검진, 화랑 라이온스클럽의 레오들은 자원봉사자로 나서 시력에 문제가 있는 한인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이번 아이캠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력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100명의 한인들이 세상을 다시 환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이번 아이캠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력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100명의 한인들이 세상을 다시 환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서영석 장로는 "2010년 아이캠프가 시작됐다. 동포들 중에 합병적인 신분이 안돼 정부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많았다. 첫 회 40여명에게 백내장 수술해줬다. 그것이 계기가 돼 해마다 캠프를 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해마다 중남미지역

에 연가 두세 차례 아이캠프를 열고 있다. 나성영락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ANC온누리교회, 새생명비전교회 등 대형교회가 함께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총영사관에서 해마다 빌려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검사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또한 화랑라이온스, 남가주 간호협회에서 조성진안과, 이성진안과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LA 군사랑선교회에서 주관한 전 합참의장, 예비역육군대장 이필섭 장로 군선교보고와 간증의 시간이 월드미선대학교 채플실에서 열렸다

### 전 합참의장, 예비역육군대장 이필섭 장로 LA 군사랑선교회에서 군선교보고와 간증

LA를 방문한 전 세계기독교인회 회장인 이필섭 장로가 4월 23일 오전 11시에 월드미선대학교 6층 강당에 모인 군사랑선교회(CLMM 회장 김희창 목사) 모임에서 한국 군복음화 현황과 세계기독교인회 선교 상황을 보고했다. 기독교인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시작한 군선교 예배는 회장 김희창 목사의 인도로 이신모 원로회 사무총장의 기도, 차 부회장과 백총무의 특송, 최정학 협력사무총장의 성경봉독(막 1:14-20), 이기홍 목사의 설교("그리스도의 부르심")가 있었다. 또한 영규서 목사회 회장이 조

국과 북한 미국 그리고 군선교를 위한 중보기도를 인도했으며, 권상우 기독교인회장의 헌금기도와 김웅구 목사의 트럼펫 찬양 후 원로회장 김명관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참석자들은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며 나라사랑을 다졌다. 군사랑선교회는 매일 마지막 토요일 오전 11시에 모이며 다음달 5월 모임은 28일에 있다. 자세한 문의는 (213)453-4572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LA군사랑선교회)



아름다운서부 미국을 달리다 주제 콘서트에서 출연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아름다운서부 미국을 달리다" 양희관 사진작가와 양지훈 씨 콜라보 공연

'아름다운서부 미국을 달리다' 주제 콘서트가 19일 오후 6시 30분 이음카페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줄리앤정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사회로 시작된 콘서트는 양희관 작가가 미주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담은 사진을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지훈아울프 프로젝트 그룹 리더이자 90년대 활동했던 서울대학교 출신 아카펠라그룹 인공

위성의 멤버인 양지훈 씨와 그의 밴드의 공연이 어우러진 무대였다. 양희관 작가는 "미주지역을 6번 횡단하면서 카메라에 담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을 양지훈 씨가 선사하는 곡에 담아서 나누고자 이번 공연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 강사 박성민 교수, 시대상황 장별로 설명 APU한인동문회 주최 다니엘서 강의

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한인총동문회(회장 최장식 목사)가 주최한 다니엘서 강의를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APU LA리저널 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강의는 본교 부총장 박성민 교수가 강사로 나서 열띤 강의를 인도했다. 박성민 교수는 "다니엘서의 시대상황은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때이며 내용은 1-6장은 역사로 그리고 7-12장은 예언과 계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다니엘 1장은 전체의 서론, 2장은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꿈, 3장은 풀무불의 세 친구, 4장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5

장은 벨사살 왕의 잔치, 6장은 사자굴 속의 다니엘, 7장은 다니엘이 본 첫 번째 환상: 네 짐승, 8장은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 솟아와 솟음소, 9장은 다니엘의 기도, 10-11장은 다니엘이 본 세 번째 환상: 큰 전쟁, 12장은 끝날이다"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또한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 찌라도'는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반드시 구하실 것이라는 사상이, 설사 구하지 않으신다 해도 능히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순교정신으로 유대인들의 신앙의 패턴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APU 한인동문회 주최 다니엘서 강의에서 박성민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LA목회자아버지학교 주최 제1회 사모위로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 LA목회자아버지학교 주관 제1회 사모 위로 행사 시애틀형제교회 후원, "몸과 맘 무장해제..."

LA 목회자 아버지학교에서 주관하고 시애틀형제교회(담임 권준 목사) 후원으로 '제1회 사모 위로 행사'가 CJ 그랜드호텔&스파에서 4월 22일, 23일 1박2일로 진행됐다. 본 행사 준비위원장을 맡은 박세현 목사는 "이번 행사의 취지는 목회자의 아내인 사모들이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보이지 않는 동역자로 모든 섬김과 봉사 하드렛 일들을 다 하지만 마음 열어 나눌 곳이 없고, 가정에서는 어려운 환경에서 가사를 돌보며 아내로 어머니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왔다. 이에 사모님들을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아내로 귀히 여겨서 사모 위로 행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첫날 저녁 오후 9시에서 10시30분까지 진행된 친교 시간은 이상훈 목사의 사회, 정충일 목사의 찬양인도로 찬양을 한 후에 이은수 목사 이해영 사모 부부의 특송과 간증으로 은혜롭고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도 아내를 섬기는 자세로 주관처가 준비한 아침식사를 남편들이 서브했다. 김근수 목사와 함께 바다위십찬양이 있는 후 남상국 목사의 비주요 요한계시록 강의(30분)가 흥미롭게 진행됐다. 한편 이번 행사를 후원한 시애틀형제교회에서는 숙박비 전액과 소정의 기프트카드를 사모들에게 증정했다. 사모위로 행사에 참여했던 박진희 사모는 "목사님들 너무 수고하셨다. 많이 위로받고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특히 정성껏 구워주시길 갈비가 어찌 맛있던지 몸과 맘이 무장해제 된 시간들이었다. 사모로 부르심에 감사드리고, 아버지 학교를 통해 많은 아버지들이 세워지고... 특히 목회자 아버지학교를 통해서 귀하신 사모님들과 사역자 가정들이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사역이 되도록 기도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기사제공: 박세현 목사)

### 쿠키테라피 · 입관체험 시도 패밀리터치 "죽음준비학교" 10주년

"죽음준비학교" 프로그램 운영 10주년을 맞는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는 올해는 "쿠키테라피"와 입관체험 시간 등을 시도했다. 쿠키테라피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생각과 감정, 자신의 성격, 육구와 소망 등을 쿠키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표현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자가 치료와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사회적인 모든 영역을 통한 발달을 도모했다. 또한 전문 사진작가를 초빙해 스토리가 있는 자연스런 영정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나

의 장례식 준비"라는 7번째 강의에는 실제 입관체험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태욱 장의사는 장례식에 관한 전반적인 준비과정과 절차내용에 대해 강의했으며,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입관체험은 5명의 시니어와 1명의 패밀리터치 직원이 참여했는데, 참가자들은 "관에서 두려움보다 도리어 아늑하고 편안했다"며,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을 정리해보는 값진 시간이 됐다"고 고백했다. (기사제공: 패밀리터치)



"죽음준비학교" 참석자들이 프로그램을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 기도/칼럼

### 기도가 사람을 변화 시킨다



박헌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열 살이 되기도 전에 아버지의 주머니를 뒤져 상습적으로 돈을 훔치는 탕아가 있었다. 19세가 되었어도 계속 도둑질하고 거짓말을 하고 술을 좋아하며 계속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나중에 훔치는 손바릇 때문에 감옥소까지 가게 되었다. 이러한 구제불능의 탕자가 변화되어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 바로 조지 몰러(George Muller, 1805-1898)이다. 몰러는 기독교 역사상 기도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기도의 응답을 5만 번 이상이나 받은 기도의 산 증인이다. 몰러는 회심이후 할레대학을 졸업하고 학문에 전념하여 6개국의 언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 나중에 선교에 눈을 뜨게 되어 세계 42개국을 다니며 약 3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93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특별히 그는 영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고아들을 보살폈다. 시편 68:5절에 기록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라는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영국 브리스톨의 예술리 다운에 고아원을 세우고 고아들을 기도로 양육하였다. 몇 명의 고아로 시작한 것이 2천 명 이상 이르게 되었다. 그는 죽을 때까지 15만 명의 고아들을 길러내어 세계의 사람들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칭송하고 있다. 몰러가 기도의 사람, 고아의 아버지가 된 연유가 있다. 어느 모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감명 받은 것이, 자신을 돌아보고 회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 그도 일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기도가 탕자 몰러를 성자 몰러로 변화시킨 것이다. 기도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 기도는 자신을 고치고, 환경도 바꾸고, 남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bible66@gmail.com



샌디에고에서 있었던 중고등부 연합 부흥회가 한빛교회에서 열렸다

### 샌디에고교협 중고등부 연합부흥회

샌디에고지역 중고등부 연합 부흥회가 한빛교회(담임 정수일 목사)에서 23일에서 열렸다. 이번 부흥회는 SOON 미니스트리(KCCC)가 참가했다. 순미니스트리 이기송 목사는 "지역교회에서 어른들에 집중된 사역들로 인해 이 시대에 중고등부 학생들의 사역은 언

제 부터인가 없어지고 관심 밖으로 내몰려져 있는 상황"이라 언급하며, "수개월 동안 샌디에고교역 자협의회와 행사를 준비하며 젊은 이들에게 다시 부흥의 불씨를 지피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아릅답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SOON 미니스트리)



한국문화센터 창립 44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 한국문화센터 창립 44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행사

한국문화센터(회장 이광덕 목사) 창립 44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행사가 22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열렸다. 이광덕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문화센터 44주년 기념감사예배 및 행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강과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목사(성광교회 담임)의 예배인도로 시작한 1부 예배는 엄규서 목사(남가주목사회 회장)가 기도를, 한아름여성합창단(지휘 이경호 목사)이 애국가 및 미국국가 합창을, 그리고 김준식 목사(남

가주삼림교회 담임)가 '신앙의 전수'(시78:4-8)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이태환 목사(한국문화센터 부회장)가 축도했다. 이어 열린 2부 행사는 케롤리의 사회로 시작, 이광덕 목사가 인사말을 전했으며 권용섭 화백의 친필경 보호를 위한 그림 한마당, 유태경 씨의 해금 특별연주, 한아름 여성합창단이 합창했다. 또한 임태랑 LA평통회장, 엔리케 잘디바 LA Sanitation Director, 마루스 해리스 도슨 LA시의원 등이 축사했다. (기사제공: 한국문화센터)

(4면에서 계속) 바울 사도 역시 같은 원리를 말했다. 나는 심었고 아כל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고 했다. 우리는 심고 물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자라게 해 주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 한해 동안 하나님께 충성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를 보고 계신다. 우리가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과 하나님이 주실 장차 받을 영광은 족히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롬 8:18). 하나님은 일한대로 갚아주

신다. 그러므로 일군은 일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착하고 충성되게 일하면 상급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자에게는 책망과 징계가 따른다. 반드시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오늘 우리의 마지막 결산 날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섬기시기를 바란다. nygo4tgc@yahoo.com

# 동부교계 기사판



**미드웨스트대학교 개교 30주년 기념 특강 및 학위수여식**  
 미드웨스트대학교(총장 제임스송 박사) 개교 30주년 기념 특강 및 학위수여식이 6월 13일(월)부터 18일(토)까지 본교에서 진행된다. 리더십 포럼과 축하음악회, 학위수여식, 목사안수식 등이 진행된다. 포럼 강사는 러시아모스크바건설그룹 회장, 미얀마 양곤대학교 총장, 뉴욕투자회장 회장, DSE 미국첨단무기 병커버스타 CEO 등이 초청된다. 자세한 스케줄은 www.midwest.edu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636)327-4645

**미기총 전국 지역교협 회장단 초청 부흥회**  
 미기총(회장 최낙신 목사) 전국 지역교협 회장단 초청 부흥회가 5월 23-25일 샬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에서 열린다. 또한 빌리 그래함 센터와 고든 콘웰 신학교에서도 21세기 기독교 교회 일치와 부흥 컨퍼런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강사는 성기호 전 경성대학교 총장과 장영일 전 장신대학교 총장 및 고든 콘웰신학교 교수들이다.  
 ▲문의: (704)877-6642

**성서유니온선교회 리더십 트레이닝 캠프**  
 북미주 성서유니온선교회가 주최하는 교회 지도자와 평신도 리더들을 위한 리더십 트레이닝 캠프(LTC, Leadership Training Camp)가 5월 2일(월) 오전 10시 등록부터 4일(수) 오후 1시30분 폐회예배까지 퀸즈하인교회에서 열린다. "하나님의 나라와 목상"이라는 주제로 주강사는 김세운 박사(풀러신학교 신약학 교수), 한규삼 목사(뉴저지초대교회), 박성일 목사(기쁨의교회), 박대영 목사(목상과 설교 편집장) 등이다. 리더십 트레이닝 캠프(LTC)는 목회자, 일반, 교사 3개 트랙으로 진행된다. 첫날 오전 11시45분에 개회예배가 시작되며 노진산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 등록비는 조기등록 100달러, 현장등록 120달러. 저녁만 참석하려면 50달러, 개척교회 교역자 및 신학생에게는 50%가 할인된다. 등록자에게는 교재, 간식과 식사, 성서 유니온 도서가 제공된다.  
 ▲문의: sunorthamerica.org

**사랑의 종 장학재단 장학생 모집**  
 사랑의 종 장학재단(대표 김장백, 이사장 안창의 목사)이 장학생을 모집한다. 응시자격은 뉴욕/뉴저지/코네티컷/필라델피아(수여식에 참석 가능한 지역)의 중, 고, 대, 대학원 재학생으로 10명에게 각각 1천 달러씩 수여한다. 마감은 5월 11일(수) 오후 5시(접수는 이메일 roman\_ismny2000@gmail.com). 수여식은 6월 5일(주) 오후 5시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갖는다. 138-28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문의: ismny2000@gmail.com

**"장애인 큰 잔치"**  
 뉴저지 밀알선교단과 뉴저지 초대교회 HIS Friends가 연합하는 "장애인 큰 잔치"가 5월 14일(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45분까지 뉴저지초대교회(담임 한규삼 목사)에서 열린다. 100여 명의 장애인들과 200여 명의 봉사자들이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이다.  
 ▲문의: (201)767-0400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4월 월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영생에 들어갈 자, 사랑을 베풀라”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4월 월례회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전희수 목사)가 21일 4월 월례회를 갖고 1/4분기 회계보고와 콜롬비아 단기선교, 페루 아동후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이희선 목사 인도로 기도 김인한 장로, 설교 오대환 목사, 합심기도 안경순 목사, 축도 유상열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오대환 목사(국내선교국장, 뉴욕 은총장로교회 담임)는 "영생에 들어갈 자"(마25:31-4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오목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서며, 양(영생 얻은 자)은 오른쪽에 염소(불신자)는 왼쪽에 서게 된다. 여기서 양은 사랑을 베푸는 자로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심판을 말씀하셨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교리만 앞세우면 율법적이 된다"며, "본문은 교리가 아닌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의 관심은 소외된 자, 병든 자, 나그네 된 자에게 두고 이들과 함께 아픔을 나눌 때 진정한 복음전도가 된다"고 강조하고 "빵과 복음이 함께 하는 기아대책은 영생 얻은 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2부 회의는 전희수 목사 사회로 개회기도후 권케터너 목사의 회계

보고, 유상열 목사의 행정보고 및 광고, 김홍석 목사의 폐회기도, 박이스라엘 목사의 만찬기도로 진행됐다. 회계보고는 일반회비와 아동후원을 분리해 △일반회비: 수입 6,934,89달러, 지출 4,071,27달러 잔액 2,864,62달러 △아동후원: 수입 19,355,32달러 지출 10,000달러, 잔액 9,355,32달러로 보고했다. 한편 임원단은 지난 13일 선교대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김종원 페루 선교사에게 '꿈나무 월드컵'에 참가하는 페루아동들을 위한 유니폼 비용을 전달한 바 있다[본지 1580호 16면 참조].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아동후원은 4월 현재 신규 1명을 포함해 해외(콜롬비아, 페루, 코트디부아르) 183명, 북한 10명으로 총 193명을 후원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퀸즈장로교회, 두란노 어머니학교 진행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열린 뉴욕 17기 두란노 어머니 학교가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라는 주제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진행됐다. 임마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는 가정 하에, '행복한 아내, 따뜻한 엄마'가 되기 위해 마련된 어머

#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미주동부노회 출범

## 백석-대신 통합 정기노회, 첫 노회장 함성은 목사

미동부 지역에 있는 예장 백석과 대신 교단통합 정기노회가 지난 24일 오후 3시 뉴욕선민교회(담임 함성은 목사)에서 열려 통합 첫 노회장에 함성은 목사, 부회장에 임준환 목사를 선출했다.

한국의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과 백석 교단 통합에 따른 것으로, 이번 미주 통합은 뉴욕노회(백석), 대뉴욕노회(대신), 미주동부노회(백석) 3개 노회가 통합된 것이다. 이날 통합노회 처리 안건은 다음과 같다.

△노회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미주동부노회로 한다. △노회 회기는 가장 먼저 시작한 대신노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미주동부노회 첫 정기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회의 회기인 52회기로 한다. 각 시찰은 뉴욕시찰, 캐나다시찰, 필라시찰, 뉴저지시찰, 조지아시찰로 한다. 노회비는 200달러로 한다.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각 노회가 추

진했던 행정사항은 그대로 받아 추진토록 한다. 목사고시 및 목사안수 추진일정은 임원회에 일임한다. 회계(재정) 인수인계는 오늘 날짜로 한다.

이날 통합노회 회무처리 진행은 임시 임원으로 노회장 이종명 목사, 서기 한준희 목사, 회의록서기 박훈식 목사로 정하고 진행했다. 새 임원 선출은 증경회장들이 모여 추천한 △회장 함성은 목사 △부회장 임준환 목사를 그대로 통과시켰으며, 신임 회장단이 지명한 △서기 한준희 목사 △회의록 서기 주효식 목사



미주가정사랑학교 어머니학교 첫날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나는 어머니” 가정을 천국으로... 미주가정사랑학교, 2기 가정사랑학교 개강

미주가정사랑학교(대표 김정숙 목사)가 주최하는 2기 가정사랑학교가 지난 20일 개강했다.

미주가정사랑학교는 한국에서 송기배 목사가 시작한 가정사랑학교 미주지부로, 어머니학교와 아버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7주 과정을 5주로 압축해 열린 이번 가정사랑학교는 20일 어머니학교 21일에는 아버지학교로 진행됐다.

첫날 어머니학교는 미주가정사랑학교 대표 김정숙 목사가 "나는 어머니다"는 제목의 어머니학교 교재에 따라 과정을 인도했다. '가정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대해 참석 어머니들의 뜨거운 나눔이 진행됐다. 어머니들은 "가정은 허물과 실패

를 덮어주는 곳, 가장 편안한 곳, 쉼터, 안식처, 작은 천국" 등으로 표현하며 지구가 되는 나눔들이 이어졌다.

또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나눔을 가졌으며 이민가정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5주 과정의 가정사랑학교 어머니대학은 20일부터 5월 18일까지 매주 수요일, 아버지대학은 21일부터 5월 1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뉴욕출거운교회(146-28 27th Ave. Flushing, NY 11354)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문의는 (917)669-0461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미주가정사랑학교)



뉴욕장로연합회 정기 목요조찬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5월 3, 4일 목양장로사역 뉴욕컨퍼런스 홍보 뉴욕장로연합회 정기 목요조찬기도회

대뉴욕지구한인장로연합회(회장 손성대 장로)는 제29차 목양장로사역 뉴욕 컨퍼런스 개최를 앞두고 준비기도회를 가졌다.

준비기도회는 4월 19일 오전 8시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린 정기 목요조찬기도회 제38차기도회와 함께 열렸다.

기도회는 박성병 장로 인도로, 설교는 허연행 목사(프라미스교회 시무)가 마태복음 9장 16-17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서 특별 기도순서에서는 장석면 장로(목양장로 세미나를 위하여), 백달영 장로(조국과 미국을 위하여), 통성기도 송운섭 장로(연합회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가 간절한 기도를 드린 후, 헌금기도에 박

석지 장로, 특별찬양 우화선 장로와 장로중장단의 은혜로운 찬양이 있었다.

이번 컨퍼런스 준비위원장 황규복 장로는 5월 3일과 4일에 개최되는 "제29차 목양장로사역 뉴욕 컨퍼런스"에 대한 준비사항 일정 등을 발표하고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이날 예배는 허연행 목사의 축도로 마쳤으며 이어서 회장 손성대 장로의 인사말과 임형민 장로의 식사기도로 조찬을 함께 나눴다.

또한 4월 생신을 맞은 회원들의 축하를 위해 케익 커팅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행했다. 본 교회 준비팀이 마련한 푸짐한 오찬 후에는 자존감 테스트가 있었으며 참석자들이 발표하는 나눔과 용서 드라마, 태우기 예식 등이 이어졌다.

이번 순제로 나의 라이프 스토리, 아버지께 편지쓰기, 사실 웃기 등이 주어졌다. 이번 어머니학교는 선착순 70명에 한해 진행됐으며 회비는 일인당 100달러였다. (유원정 기자)

△회계 박종오 목사가 선임됐다. 또 이날 통합노회에서는 새 임원으로 우병만 목사(교회넷 대표)를 받아들이고, 가스펠장로교회 신우철 위임목사 청원, 최경덕 강도사 목사고시 임시청원, 오경환 강도사 목사안수 청원, 헤리스버그리디머교회 장로 2명 임직청원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이종명 목사 인도로 기도 임준환 목사, 설교 강철홍 목사, 헌금기도 김법천 목사, 축도 송원섭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강철홍 목사(헤리스버그리디머교회)는 아시아 43장 18-21절을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하나님의 의로 새 일을 행하게 된다"며, "통합된 3개 노회가 서로 격려하며 성령의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줄 믿는다. 말씀으로 믿음 갖고 나갈 때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노회장 이종명 목사는 "산과 없이 의미가 없다. 불합리한 것은 용서와 이해와 아량으로 받아주면 하나님께서 발전, 성장, 강성케 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노회 노회원은 36명이다. (유원정 기자)



제17회 청소년 농구대회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후리싱제일교회 · 아름다운교회 우승 뉴욕청소년센터 제17회 청소년 농구대회

뉴욕교협(회장 이종명 목사) 산하 청소년센터(AYC, 대표 황영송 목사, 사무총장 공재규)가 주최하는 제17회 청소년 농구대회에서 후리싱제일교회와 아름다운교회가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23일 프레쉬 메도우 홀리

카우 농구장에서 열린 농구대회 경기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등부: 1등 후리싱제일교회, 2등 뉴욕선민교회 △중등부: 1등 아름다운교회, 2등 뉴욕능기원교회. (기사제공: 뉴욕청소년센터)



기독교스 창간7주년 및 CBSN 개국1주년 감사예배에서 양승호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 “천국 확장” 주님 지상명령에 순종 기독교스 창간7주년 및 CBSN 개국1주년 감사예배

기독교미디어 씨존(대표 문석진 목사)이 만든 기독교스(www.godiscus.com)와 뉴욕기독교방송 CBSN이 각각 7주년과 1주년을 축하하는 감사예배가 24일 뉴욕 맨하탄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렸다.

대표 문석진 목사는 "2009년부터 7년 간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그동안 함께 해온 기자, 스태프, 후원 교회, 단체 및 개인, 애독자, 애청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작은 불발음으로 시작해 인터넷신문, 종이신문, 라디오방송으로 차츰 확장된 것은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확장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이라 믿는다. 앞으로도 오직 믿음으로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기도과 후원 부탁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준희 목사의 인도로 시작한 예배는 CBSN 합창단의 오프닝 찬양, 정관호 목사의 기도, 손성대 장로의 성경봉독, 뉴욕장로성가단의 찬양, 양승호 목사의 설교(“믿음으로

만 가능합니다”, 요14:1), 지면리 자매의 헌금특송, 장경혜 목사의 헌금기도, 홍보영상 상영, 문석진 목사의 인사, 헌금전달식, 축사, 뉴욕 필그림선교무용단의 축무, 임선순 목사의 축도, 김태욱 목사의 만찬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축사는 이종명 뉴욕교협회장, 김영환 뉴욕목사회장, 김민선 한인회장, 성삼모 AM1660사장 등이 했으며 뉴욕필그림 선교무용단의 축하공연도 있었다.

씨존은 목회와 선교를 미디어로 후원하기 위해 2009년 4월 20일 설립돼, 인터넷신문 기독교스(www.godiscus.com)를 발행, 뉴욕기독교방송 개국 등 방송 사역을 중심으로, 문화, 선교, 구제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한편 CBSN 합창단은 오는 9월 18일 오후 8시30분 카네기홀에서 찬양합창제를 개최한다. (유원정 기자)



두란노 어머니 학교가 퀸즈장로교회에서 진행됐다.

# “잘 훈련된 평신도 만드는 목회 집중”

## 미주23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국제제자훈련원(원장 오정현 목사)가 주최한 미주 23기(제103기)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18일부터 23일까지 남가주 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오정현 목사(서울 사랑의교회 담임)와 노창수 목사가 주강사로 나섰으며 이상철 목사, 김홍장 전도사(이상 남가주 사랑의교

회), 박주성 목사, 강명욱 전도사, 박성수 장로(이상 서울 사랑의교회), 김재중 목사(덴버 헬로교회 담임)가 주제 강의를 맡았다.

오정현 목사는 “목회자가 잘 훈련된 평신도를 얼마나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것은 목회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 언급하며, “제자훈련 세미나는 평신도 훈련을 위한 완제품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다. 평신도 훈련은 지역교회에 따라 그 방법과 적용이 다르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더 잘 감당하고자 다 같이 힘과 뜻을 모으

는 공동작업이다. 우리의 사역에 수많은 좌절과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 목회의 본질, 한 사람 철학, 평신도 사명자로 만드는 일에 확고한 뿌리가 있으면 건강한 교회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세미나를 통해 목회의 본질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 사랑의 하모니 음악축제 ‘동행’

## 한미특수교육센터, 장애우와 함께 서는 무대 마련

한미특수교육센터(소장 로사장) 주최한 사랑의 하모니 음악축제가 ‘동행’이라는 주제로 24일 오후 6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미라클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로사장 소장은 “이번 음악축제의 특징은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비장애 친구들과 함께 주인공이 돼 무대에 서는 것”이라며, “음악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고,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는 치유가 된다. 장애학생들은 음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즐겁고 행복해하며 자신감을 얻는다. 아직 원석이 우리 학생들이 빛나는 보석이 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에 걸친 부모님들의 인내와 사랑, 전문가의 지도, 그리고 커뮤니티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 이번 음악축제가 관심 가져 주시고 후원해

주시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방송인 박혜란 씨와 크리스차 씨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음악축제는 그레이스 찬양팀의 찬양이 있었으며, 도로시조(성모마스성당), 선강과 강성현(한미특수교육센터), 남가주 사랑의교회 사랑부, 풀신과 제임스로(ANC은누리교회 장애부), 베델한인교회 소망부, 앤드류김과 정주수(나성영락교회 소망부), 딜리버러 앙상블(지휘 최은애 자매), 캠퍼블, 마이클남궁, 지저스라이트(은혜한인교회)가 출연했다.

또한 이날 영길 거주하원의원이 격려사와 함께 이날 참가한 장애인체들과 오픈뱅크 한미특수교육센터에 감사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 사랑의교회에서 열린 미주23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더텐트가 주최한 마당콘서트 'The Busking with The Tent'라는 주제로 마당물광장에서 열렸다

# 'The Busking with The Tent' 주제 더텐트 마당콘서트 성황

더텐트(대표 다니엘방 목사)가 주최한 마당콘서트가 23일 오후 7시 한인타운 내 마당물 광장에서 'The Busking with The Tent' 주제로 성황리에 열렸다.

박수영 자매의 사회로 시작된 콘서트는 아카펠라그룹 인공위성 멤버인 양지훈 씨와 MIO수퍼 씨, 재즈피아니스트인 윤국형 씨, 드러머 Jy, 기타리스트 Nicholas Cisneros, 베이스기타리스트 Erik Carlson, 그리고 한국에서 아이돌 그룹 보컬 트레이터로 활동하는 경다솜 씨로 구성된 지훈아울프로젝트 그룹을 비롯 최천국 전도사, 기타리스트 조나단심, 베이스리스트 헨리심, 키보드 류자연으로 구성된 해브스밴드, 버클리음대 출신의 재즈피아니스트이자 베네딕도대학교 교수인 김경민 씨, 베이스리스트 케이인, 드러머 이현규로 구성된 김경민 트리오와 하모니카 연주자 최은석 씨의 재즈공연, 색소폰 연주자 켈빈 박

등 실력과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출연해 팝, 재즈, 찬양곡을 선사했다.

이날 공연이 시작하면서 마당물을 찾아온 청년들은 물론, 공연소식을 듣고 찾아온 음악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며, 아티스트들의 모습에 공명했다.

신문기사를 보고 공연장을 찾아온 부에나파에 위치한 하나교회 박종기 목사는 “하나교회에서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을 초청해 좋은 공연을 기획하고 싶어서 공연장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저희 교회는 공연을 하기 좋다. 하지만 하드웨어만 있지 소프트웨어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텐트의 공연이 큰 도움이 됐다. 앞으로 텐트 관계자들에게 좋은 크리스천 뮤지콘서트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한미특수교육센터 주최 사랑의 하모니 음악축제 '동행'이 은혜한인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

## 남침례회한인교협, 조철민 목사안수 감사예배

조철민 목사 안수감사예배가 한인필그림교회(담임 이기영 목사)에서 23일 오전 11시에 열렸다.

조철민 목사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다”고 말하며, “저를 위해 기도해주신 많은 목사님들, 교수님들,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라 믿는다. 앞으로 많은 기도와 격려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영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안수감사예배는 최철홍 목사가 기도했으며 정성모 목사(남침례회남가주한인교회협의회 회장)가 ‘내가

누구나(요1:19-27)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광재필 목사(남침례회남가주한인교회협의회 감사)가 시경 경과보고, 이기영 목사가 문답, 안수위원들이 안수례, 이기영 목사가 공포 및 안수증 수여했다.

이어 박승환 목사(한인필그림교회 원로)가 권면을, 김석웅 목사(아주사파시픽신학교 교수)와 김승식 목사(미주 남침례회 아시안 책임자)가 축사를, 박선부 사모가 축사를 낭독했으며 조철민 목사의 담사가 있는 후 조철민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조철민 목사는 아주사파시픽

# 서부교계 게시판

##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마당축제

사랑의 마당축제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나성한인교회(담임 신동철목사)와 해피비리지(KAVC 미주한인봉사단)가 공동주관하는 제30회 사랑의 마당축제가 5월 7일(토) 오전 10시-오후 3시 Whittier Narrows Recreation Area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발달장애인 1인 5달러. 자원봉사자는 무료. 본 행사를 위해 ANC은누리교회, 가주남교회, 감사한인교회 등 16개 교회와 12개 단체가 협력한다.

▲문의: (657)400-9670, (213)368-2067

## OC 제일장로교회 비전센터 입당기념 행사

OC 제일장로교회(담임 염영민 목사)가 OC1 비전센터 입당을 기념하며 감사 집회를 갖는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자’란 주제로 열리는 집회는 4월 29일-5월 1일 진행되며 김승욱 목사가 강사(할렐루야교회 담임)로 선다. OC1 비전센터 입당예배는 1일(주) 오전 10시 30분.

▲문의: (714)899-9191

## 울타리선교회 창립 17주년 감사예배

울타리선교회(이사장 김성일 장로, 대표 나주목 목사)가 창립 17주년을 기념하며 오는 30일(토) 오전 10시 30분 울타리선교회(4279 S. Western L.A) 예배실에서 감사 찬양예배를 드린다.

▲문의: (213) 819-3300 / (213) 595-7073

## FBM, 뇌 과학과 태아학교 오픈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Family Builders Ministry)에서 태아학교를 오픈하고 임신한 커플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5월 15일, 5월 22일 양일간 오후 6시-9시 진행되며 임신, 태고, 출산과 모유 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회비는 30달러. 간단한 식사와 교재, 선물이 준비된다.

▲문의: (714)287-2458

## 꿈의 대학진학 세미나

남가주 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 문화사역원에서는 4월 30일, 5월 7일 이틀 동안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제1회 대학진학 세미나를 개최한다. 강사는 심영상 원장(Ivy Master Academy).

▲문의: (562)896-9632

## 선교사 초빙

충현선교회(담임 민종기 목사)와 충현새일세계선교회(이사장 민종기 목사)가 인도네시아 주재 선교사를 초빙한다. 자격은 신학과정을 마치고 2016년 안에 파송될 수 있는 개혁주의 신앙을 소유하고 세계선교의 소명이 투철한 자로 이력서 및 가족사진, 개인간증 및 선교비전서, 목회자 2인 추천서, 설교CD 2개를 보내면 된다. 서류마감은 6월 4일(토)까지.

▲문의: (818)549-9191, jlk9498@gmail.com



조철민 목사안수식에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학교에서 목회학석사학위(M.Div) 취득했다. 를 취득했으며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Th.M)를

(박준호 기자)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서부(CA)교회안내

<b>감사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영안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1부예배: 오전 7:45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5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lgusa@yahoo.com / www.lalgusa.com Tel: (323)913-4489, Fax: (323)913-448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b>나성영락교회</b>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b>나성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b>나침반교회</b>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평일목회: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EM, 대부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b>남가주든든교회</b>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드림)예배: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ccsa	<b>남가주 사랑의교회</b>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영안예배(침소-KDC, 킹덤드림센터): 주일 9:20, 11:20 대학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40(월-토)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www.aka.org	<b>대흥장로교회</b>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pc.org	<b>등문교회</b>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www.stgpc.org	<b>디아스포라선교회</b>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있는 우리의 동행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일예배: 저녁 8:00 수요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2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8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b>미주양광교회</b>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예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1부: 오전 8:30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45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www.mjpcia.com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b>빛과 소금의 교회</b>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2:45(월-토) 새벽기도: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b>베델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한효 주일예배1부: 오전 7:15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영양) 성인영양예배: 오전 11:00 대학영양예배: 오후 1:00 영안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Tel: (949)854-4010 / E-mail: be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안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2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b>요셉선교회</b>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대예배: 오전 7:30 금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927 S. Bonnie Brae St., L.A., CA 90006	<b>얼바인침례교회</b>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예일)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0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3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St., Irvine, CA 92604	<b>월서크리스천교회</b>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4부예배: 오후 2:00(대학부) 새벽기도: 오전 5:4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영양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새벽기도: 3:00(월-토), 6:00(토) www.graceml.com Tel: (714)446-626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Ct., Fullerton, CA 92833	<b>주님세운교회</b>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50(월-토) 성령대명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mchurch.com	<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pcic.org	<b>중은마을교회</b>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3부예배: 오전 11:45 주일4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www.socalsamsungchurch.org Tel: (714)646-6239 Fax: (714)646-628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b>코네티스트 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수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cornestonestv.com / e-mail: pastor@icorre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9400 2429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b>토렌스조은교회</b>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2:00(EM) 주일5부예배: 오후 3:00(영양) 영안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www.torrancecg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입니다...

## 동성애·동성결혼 관련 박원순 시장 비판 시위 검찰, 목회자 등 3명 무혐의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가 서울시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던 목회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예수채 단 임요한 목사 등 3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임 목사는 2014년 11월부터 서울광장에서 시위를 벌이며 '동성애 홍보대사 박원순을 타도하자' '피땀 흘려 세운 나라 동성애로 무너진다. 친동성애 박원순 시장 OUT' '동성결혼 합법화 지지하는 박원순

퇴출' 등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거나 확성기로 이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알렸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며 임 목사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시정(市政)에 대한 주관적 의사 표현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임 목사는 "박 시장은 개인이 아닌 공직자이자 정치인"이라면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박 시장의 발언이나 행동이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통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 시장이

소통 전문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세월호 천막은 보호하면서 유독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위에 대해선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면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 해도 임 목사의 주장은 내용이 너무 지나치다"면서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으며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초 서울광장에 설치된 시위용 책상과 의자 등을 철거하겠다는 행정대집행 영장을 임 목사에게 보냈다. 서울시 직원 50여명은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예배를 드리던 임 목사의 시위용 책상 등을 강제 철거했다. 임 목사는 이를 저지하다 서울시 관계자와 충돌해 병원에 입원했다.

## CBS, 종교개혁 500주년 맞아 11개 교단과 MOU

### 특집방송, 한국교회갱신 캠페인, 발생지순례 등 사업전행

CBS 기독교방송(사장 한용길)은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11개 교단과 함께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CBS와 이들 교단은 20일 서울 목동 CBS 사옥에서 이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행사장에는 구세군대한본영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등 11개 교단의 총회장이나 부총회장, 총무

등이 참석했다.

한용길 사장은 "CBS가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함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BS는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종교개혁의 의미 등을 담은 특집 방송을 마련하고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11개

교단과 공동으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종교개혁이 발생한 독일 스위스 체코 프랑스 영국 등을 방문하는 순례 프로그램도 진행하기로 했다. CBS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1월 '종교개혁 500주년기획단'을 설치했다.

CBS와 11개 교단은 이날 신천지 퇴출을 위한 성명도 발표했다. 이들은 "신천지가 한국 교회의 주요 연합기관 앞에서 '한기총 해체와 CBS 폐쇄'를 호소하는 만행을 벌이고 있다"며 "한국교회는 신천지를 철거하고 교회를 지키는 일에 분연히 일어선다"고 강조했다.

## "루터가 본 교회·정치 본질은 이웃 위한 봉사"

###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

"교회와 정치세력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두 권력 모두 '이웃 사랑'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게 루터의 정치신학입니다."

김주한 한신대 교수는 기독교한국루터회(총회장 김철환 목사)와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대표회장 이준용 목사)가 23일 서울 용산구 중앙루터교회에서 개최한 '종

교개혁 500주년 기념 제9회 종교개혁신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루터신학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열린 이날 대회에서 '마르틴 루터의 정치신학과 공공성'에 대해 발표한 김 교수는 "교회는 평화·인권 등을 위해 공권력에 복종해야 하지만 국가가 권력을 남용할 경우 끊임없

이 권면하고 저항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수 백석대 교수는 "다원성을 강조하는 현대의 포스트모더니즘 속에서 루터가 제창한 '오직 성경만으로'란 표어는 성경해석에 있어 더없이 중요하다"며 "그리스도인이라면 루터 시대처럼 신학과 신앙을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 위에 확고히 세우려는 노력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은재(감신대) 김성욱(웨신대) 김선영(실천신대) 교수가 마르틴 루터의 신앙과 종교·교육 개혁을 주제로 강연했다.

## 3000여명 '회개·회복의 100분 기도'

### 예장합동, 목회자장로기도회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박무용 목사)의 전국 목회자와 장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단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제53회 목사장로기도회'가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경기도 의정부 광명교회(최남수 목사)에서 개최된다.

'회개와 회복-주여, 우리를 살려주소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도회는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에 더욱 집중하는 시간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기도회의 중심축이었던

저녁영성부흥회와 새벽기도회에 이어 둘째 날 오전 '100분 기도회' 일정을 추가함으로써 3000여명의 참석자들이 기도를 통해 개인은 물론 교회와 교단을 깊이 성찰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박무용 총회장은 예장합동 산하 전국교회에 목회서신을 발표하고 '회개와 회복, 통일선교를 위한 화합'을 당부했다. '회개해야 살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서신에서 박 총회장은 "남북 대치, 살인과 폭력,

성도덕의 문란, 동성애와 이슬람의 침투 등 반기독교적 상황에 직면해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남의 탓만 하면서 정작 자신은 회개하지 않는다"며 "회개해야 살 수 있고 무릎 꿇어야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여 총회 결의에 대한 불복과 사회법 제소로 인한 손실을 언급하며 "총회를 위해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바른 신학과 신앙 전파'라는, 하나님께서 총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자"고 촉구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일한국을 위해 다음세대 한국교회와 총회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함께 울면서 내일의 대한민국을 세우자"고 호소했다.

다. '태아알코올증후군'을 가진 아동은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과 지능, 판단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상적 인간관계가 어렵고 전문 기술을 배우지 못해 일정한 직업을 갖기 어렵다.

박 교수는 "태아알코올증후군 한 명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치료와 교육 등의 명목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5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성의 음주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근육보다 지방이 많아 술을 잘 해독시키지 못해 피하가 더 크다"며 "여성들이 술을 마시지 않으면 태아알코올증후군을 100%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절제회는 2012년부터 대성홀딩스, 한국교총 원격교육연수원 등과 함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인 '청소년 금주·금연 교육 가이드'를 제작해 전국 교사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절제회는 2012년부터 대성홀딩스, 한국교총 원격교육연수원 등과 함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인 '청소년 금주·금연 교육 가이드'를 제작해 전국 교사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피종진 목사가 평화통일 구국기도회 및 한국교회 원로 은퇴 목회자 체육대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 "모세처럼 불타는 애국심 갖고 한국교회 일치 앞장"

### 평화통일 구국기도회 및 원로 목회자 체육대회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 후원회(이사장 임원순 목사, 명예총재 피종진 목사)가 주최한 평화통일을 위한 구국기도회 및 한국교회 원로/은퇴 목회자 체육대회가 14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렸다.

3천여명이 잠실학생체육관을 가득 채운 가운데 김진욱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기도회는 주찬양선교단 최덕신 전도사와 웅기장의 찬양, 지덕목사 대표기도, 이명일 목사 성경봉독, 피종진 목사 설교로 진행됐다. 피종진 목사는 "모세처럼" (

출4:19-20)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모세처럼 애국애족의 불타는 심정을 가지고 평화통일과 북핵문제를 원, 정치안정, 동성애 반대, 이슬람 확산저지, 경제안정, 한국교회 일치를 위해 앞장서며 모세처럼 사명의 지팡이를 굳게 잡고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더 부흥의 불길을 켜가자"고 호소했다.

이어 이영훈목사와 오관석 목사가 축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특별기도 시간에는 스나라의 안정과 경제 성장(최병두 목사)

## 이수정 선교사, 한국인 첫 주기도문 번역

### 박용규 한국기독교사연구소장, 미 뉴헤븐대 고문서실서 발견

'조선의 마게도나인'(행 16:9) 이수정(李樹廷·1842-1886)이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주기도문을 번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용규 한국기독교사연구소장은 20일 서울 중구 영락교회 환경직기념관에서 이수정의 주기도문 번역본이 실린 '바이블 소사이어티 레코드(BSR)'의 내용과 사전을 공개했다. BSR은 미국성서공회가 발간한 잡지로 1885년 5월호에 'THE LORD'S PRAYER IN COREAN'이라는 제목으로 한글로 된 이수정 주기도문을 게재했다.

'우리 아버지 하늘의 계음시니'로 시작하는 주기도문은 세로 9줄에 총 161자로 이루어져 있다.

박 소장은 지난해 여름 미국 동부 뉴헤븐대 고문서실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찾던 중 이 자료를 발견했다. 국내에는 1884년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의 주기도문 번역본만 알려져 있을 뿐, 이수정 주기도문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다.

한글 주기도문이 처음 등장한 건

중국 동북지역에서 활동하던 로스 선교사가 번역한 마태복음이 1884년 출간되면서다. 박 소장은 "로스 목사의 주기도문은 현대적 관점에서 평가해도 잘 번역된 것이지만 완전한 번역은 아니었다"면서 "이수정 주기도문은 로스 선교사의 주기도문보다 더 완성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정 번역본은 로스역과 달리 주기도문 후반부에 등장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까지 완역했다. 로스역에는 이 부분이 생략돼 있다.

박 소장은 이수정 주기도문이 1884년 즈음에 번역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수정이 직접 손으로 쓴 것을 미국성서공회에 보냈고 미국성서공회는 BSR에 그 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박 소장은 이수정 주기도문이 한국인뿐 아니라 미국 선교사들에게도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어줬다고 소개했다. 박 소장은 중국 서부 산시성에서 사역하던 미국성서공회 권사인을 통해 이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들(김성길 목사) △한국교회의 갱신과 성장(김진호 목사) △북한의 핵 포기과 평화통일(이용규 목사) △원로후원회 발전(송용필 목사) △북한 동포와 어린이들의 복지 향상(곽수광 목사) 등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한 후, 2부 행사로 이어졌다.

2부 행사에서는 문세광 목사(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 대표회장), 김형태 목사(한국기독교목사원로회 중앙본부장),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감사패를, 이심 회장과 이경은 목사(순복음진주초대교회), 방송인 이상용 씨에게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을 각각 수여했으며 미혼모들을 위한 (사)평화복지재단에 성금을 전달했다.

또한 가수 출신 윤항기 목사(예음음악신학교 총장)와 배우 임동진 목사, 한인수 장로, 정영숙 권사, 그리고 CCM 사역자 최덕신 전도사와 트레이너 정주호 집사(스타트레인)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오후 시간에 열린 체육대회는 문세광 목사 기도로 시작되었으며 박진섭 목사가 진행 실명을 김동원 목사 선수 선수가 있는 후 정주호 집사의 준비운동 인도가 있는 후 이상용 씨와 박진섭 목사의 사회로 진행, 여러 가지 게임을 통해 기쁨을 만끽하기도 했다.

(기사제공: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 후원회)

수정 주기도문이 한국인 상인 5명에게 전달됐다는 기록이 BSR의 1885년 11월호에 실린 것을 찾아냈다.

박 소장은 "이수정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오도록 하는 데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그가 미국 교회에 선교사 파송을 호소한 편지가 1884년 2월호 BSR에 게재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한 달 뒤인 1884년 3월 세계 선교보고서에 처음 실린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어 "이수정의 편지가 언더우드를 비롯한 미국의 젊은 이들을 깨웠던 것처럼 그의 주기도문이 한국교회에 새로운 도전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수정은 1882년 박영효의 수행원 자격으로 도입한 이듬해 일본 기독교인이자 농학자인 츠다센을 만나 복음을 접했으며 1883년 4월 세례를 받았다. 이후 미국성서공회 루미스 선교사 등의 권유를 받아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 성경을 들고 내한했다. 첫 선교사가 입국하면서 그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갖고 온 사례는 한국밖에 없다.

## 한국교회 '회개의 골든타임'

### '깊은회개운동심검위원회' 제1차 깊은회개집회

"회개의 골든타임임 이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깊은 회개를 드림으로서 한국교회의 본질적인 회복과 성경적인 새로운 대부흥의 역사를 기대한다는 취지로 출범한 '깊은회개운동심검위원회'(심검위·위원장 조정대 목사)의 사역이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 회개운동은 성경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꾀겠다" 하느니라(잠1:5)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마16:3)는 말씀에 근거, 오늘의 한국교회가 회개복음(마4:17)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자는 운동이다.

깊은회개운동 주최측은 최근 집회 일정과 장소를 다시 정하고 전국의 교회들과 여러 단체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번 기도집회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 바 있다.

조정대 위원장은 "엘리아처럼 하나님께 무릎 꿇고(왕상18:41-46)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조국의 진정함을 광복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결심(단9:1-23)하여 결국 평화적인 남북통일의 민족의 소원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자는 뜻"이라며 "한국교회의 잘못된 성도들의 영적 아비오머민 목회자들에게 있음은 인정하고 주님 앞에 먼저 앞드러지는 것"이라고 집회 배경을 소개했다. 즉 교회와 민족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자는 취지인 집회다.

이번 깊은회개집회는 제1차로 4월 25일 오후 7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회개의 골든타임임 이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눅13:5)라

는 말씀을 주제로 열렸다.

주최측은 "북한의 핵전쟁 위협 수위가 날로 강해지고 있는 이 때 교회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중요한 때임을 직시하고 기도는 300명 용사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처럼 함께 모여 깊은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라며 "오늘의 영적 대위기를 성령과 말씀을 따라 슬기롭게 대처하고 자 깊은회개집회의 자리를 절실한 마음으로 마련하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한조정대 위원장은 "영적 대위기인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을 바라보며 이번 깊은회개집회에 참석하여 함께 무릎꿇고 함께 회개하자"며 "한국교회와 전 세계 한인디아스포라교회가 먼저 우리 하나님께 깊은 회개기도를 드릴 때 민족적인 차원의 깊은회개운동은 일어나며 결국 한반도 평화통일과 우리 한국교회 위에 성령의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고 조언했다.

김광태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도 "다수의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빠져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지내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관계의 약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동현 교회정보기술 연구원은 "스마트폰 대중화로 채팅 앱을 통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회는 청소년들이 디지털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 교육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교회언론회, 4대 디지털 중독 포럼 개최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21일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4대 디지털 중독포럼'을 개최하고 성(음란물)·게임·쇼핑 등의 중독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했다.

김성 중앙신학대학원대(상담학과) 교수는 "성중독자들은 역기능적 가족, 성장기 정서적 욕구의 좌절, 은밀한 성적 비밀의 세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이들은 불안과 긴장 상태에서 성적 일탈로 성적 분노를 표출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왜곡된 성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데 성중독자들은 이런 한국의 성문화를 정당화한다"면서 "한국교회가 이들을 치료하려면 성중독자가 처한 개인·가족·사회·문화적 환경을 연구하고 성중독 상담 전문가를 투입해 집중 치료해야 한

## "아동학대와 가정파괴, 술이 문제다"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금주·금연 정책 건의

아동 학대와 자녀 살인 등 가정 파괴의 주 요인 중 하나는 '술'이다. 근래 발생한 가정 폭력 사건의 공통점은 부모가 술을 마시고, 대소변을 못 가리는 자녀를 학대한 것 등이다. 이처럼 술로 인해 무너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여성 크리스천들이 나섰다.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는 26일 서울 용산구 후암로 절제회 회관에서 '금주·금연 정책 건의문'을 발표하고 정부에 방송의 음주장면 및 주류광고 금지, 태아알코올증후군 예방센터 신설, 금주정책 및 술·담배 해독교육 실시, 군대의 금주·금연 구역화, 절제주일 제정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절제회는 1923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해마다 건의문을 발표하고 금주·금연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다.

절제회 김영주 회장은 "아이가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것은 어머니가 임신 중에 술을 마셔서 아이

의 뇌와 중추신경이 손상된 것일 수도 있다"며 "이대로 술을 방치하면 끔찍한 비극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피해 아동 보호법제'에 대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모의 음주는 아동학대의 중요한 위험 요인이었다. 최근 10년 동안 신고된 아동학대 가해자 중엔 부모(83%)가 가장 많았고, 같은 기간 친부모의 아동학대는 2.7배나 늘었다. 자녀를 학대한 부모 가운데 알코올 중독 상태는 82.7%나 됐다.

절제회 교육부 이사인 박경일 이화여대(간호대) 연구교수는 "어머니가 마신 술의 영향을 받고 태어나 아이는 기형아로 태어날 확률이 높다"며 "알코올은 기억력 세포들이 모여 있는 해마와 뇌의 앞부분인 전두엽을 공격한다. 알코올은 태아의 뇌를 손상시킨다"고 경고했

# 선교의 창 (53)

## 미주한인 선교 올림픽에 부처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북미주 한인 최대 선교운동인 세계선교대회가 다가오고 있다. 바로 남가주에 있는 아주사퍼시픽 대학(Azusa Pacific University)에서 6월 3-10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KWMC(Korea World Mission Council for Christ)가 주최하는 본 대회는 올림픽처럼 매 4년 주기로 개최된다. 처음 대회는 1988년 7월 시카고 휘튼 칼리지(Wheaton College)에서 열렸다. 지난 28년 동안 7차례 걸쳐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되었던 본 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미 서부에 열리게 된 것이다. 그간 비자(Visa), 지리적 위치, 부대조건 등 여러 문제로 인하여 모임 장소를 시카고로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주요 쟁점들이 해결됨으로 굳이 개최장소를 한 곳으로 고집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미 서부는 디아스포라 한인 중 가장 큰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특히 남가주에는 미국 한인들의 1/3이상이 거주하며 약 1,400개 한인교회들이 밀집되어 있다.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이곳에 한인선교대회가 늦게라도 열리게 된 것은 다행이며 의미가 크다. 문제는 대회를 맞이하는 우리들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미주 한인교회에게는 한없는 선교적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본 대회를 통한 기대 목표  
본 선교 올림픽을 통하여 기대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금번 집회의 대회장이신 한기홍 목사는 행1:8말씀에 의거, 성령의 임재가 모든 참석자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즉, 성령은 선교의 영이며 그 영이 임할

이번에 세계 171개국에서 수고하고 계신 중견 선교사 1,000명 이상이 본 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주최 측에서는 선교사들의 귀한 발걸음이 한인교회에 유익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방편으로 남가주에 있는 각 교회가 선교주일로 지키는 것이다. 이때에 선교사들이 1,400 한인교회로 흩어져 선교적 도전을 하며 교우들과 만남을 갖게 된다. 한인교회는 늘상 드리는 예배의 틀을 벗어나 생생한 선교간증을 들을 수 있다.

가를 드리면 어떻게 싶다. 둘째, 청소년 및 대학 청년들이 동원되어야 한다. 차세대를 책임질 젊은이들이 본 대회에서 영향을 받고 위대한 결단을 할 때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다. 가능한 청소년이나 대학부 등 여름철 수양회를 이것으로 대체하는 것도 한 방안일 것이다. 셋째, 남가주에 거주하는 교우들은 등록을 권장한다. 여기서는 비행기를 탈 필요가 없다. 만일 생활 여건상 전체 참석이 어려우면 한 번이라도 현장에 가보기를 권한다. 백문이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란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다. 아무튼 값진 이 대회에 많은 사람이 동원되면 좋겠다. 주최 측에서는 이를 위해 1-1-10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것은 한 사람이 매일

본 대회의 핵심은 선교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그 영이 충만할 때 우리는 선교적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것은 존재적 변화 속에 증인 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때 권능이 나타나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 선교적으로 변혁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전제하에서 만남의 감격, 사랑의 교제, 비전의 융합, 기도의 연합, 사명의 재무장, 전인치유, 영적 회복, 정보와 전략의 상호교류 그리고 한인교회 선교역량의 촉진(Catalyzing), 동원(Mobilizing), 번식(Multiplying) 등 동반자 협력선교의 대 광장이 될 것이다.

모든 역사는 만남에서 시작된다. 만남에서 바라보며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 얼굴을 맞대며 같이 떡을 떼고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때 마음 문이 열리고 진한 동지애가 생긴다. 또한 선교사 입장에서 보면 객지에 나와 고독과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투쟁하다 이렇게 먼 이국 땅에서 한인성도들의 따뜻한 영접을 받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는가? 이 선교주일은 피차 간에 힘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순간이다.

한번 이상 기도하고 한번 이상 대회에 참석하며 교회 출석 인원의 10% 이상 등록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맺음 말  
북미주 한인 최대 선교축제가 예비 되었다. 6월 6-10일 남가주 아주사 대학으로 가면 된다. 주빈은 우리 크리스천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종들을 통해 준비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여해주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다. 조건은 열린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다. 만일 이 기회를 놓치면 또 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한다. 아니 4년 후 남가주에서 본 대회가 다시 열린다는 보장도 없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원컨대 남가주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생업이나 사역을 일시 멈추고 본 대회에 임하기를 기원한다. 준비된 만큼 많이 얻을 것이다. 또한 여러 사정으로 올 수 없는 미주와 전 세계 한인 교우들은 제8회 한인세계선교대회에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주님은 한 분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jrsong007@hanmail.net

구체적으로 첫째, 하나님께서 이미 검증된 최고의 강사진들을 통해 놀라운 말씀들을 하실 것이다.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분의 세계적 강사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오대양 육대주에서 복음을 들고 헌신한 선교사들의 사역보고는 참석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것이다. 진부한 이론이 아닌 그들의 삶과 사역은 우리의 매마른 가슴을 촉촉이 적셔줄 것이다. 셋째, 주제별 선택식 강의와 포럼 등은 각자의 관심사를 밀도 있게 다룰 것이다. 얼굴을 가까이서 보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미주한인 선교동원  
잔치에는 손님들이 와야 한다. 시간, 재정, 인력 등 큰 대가를 지불하고 잔치를 준비했는데 정작 사람들이 안 오면 이것처럼 헛실망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오대양 육대주에서 복음을 들고 헌신한 선교사들의 사역보고는 참석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것이다. 진부한 이론이 아닌 그들의 삶과 사역은 우리의 매마른 가슴을 촉촉이 적셔줄 것이다. 셋째, 주제별 선택식 강의와 포럼 등은 각자의 관심사를 밀도 있게 다룰 것이다. 얼굴을 가까이서 보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6월 5일 선교주일

## 선교 펴기

### 필리핀 민다나오섬

#### 1. 새희망학교 3회 졸업식

2016년 새해가 밝은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4개월이 지나 필리핀에서 가장 더운 시즌이 되었습니다. 지구촌의 이상 기온으로 이곳도 오랫동안 비가 내리다가 들어갔습니다. 대부분의 마을들이 하루 2-3시간 정도의 수도 공급만 받고 있지만 다행히 저희가 머무는 집은 수도국과 같은 동네이어서 수돗물이 잘 공급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가장 더운 3월부터 5월이 아이들의 여름방학 기간이며 6월 말부터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저희 새희망 초등학교도 지난 3월 28일 종업식과 3월 29일 제

달구어진 자갈밭을 어른 걸음으로 30분이상 걸어가야 도착하는 마을. 맑은 날에 방문하였는데도 파도가 높았습니다. 바람이 조금만 세차게 불어도 파도가 높아 아이들은 학교를 가기위해서 산을 넘어 돌아다녀야 하는데 학교까지 꼬박 2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학교를 마친 파리다가 대견하였습니다. 푸부란 마을의 아이들은 중도에 학업을 포기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가난하기도 하고 부모들이 학교보다는 고기를 잡거나 잡은 고기를 시장에 팔러 다니는 일들을 시킵니다. 그렇게 교육 받지 못한 남자아이들은 나중에 많은 수가 이슬람 테



림빠 마을 새희망 학교 3회 졸업식



2016년 여름성경학교(VBS)

3회 졸업식을 끝으로 방학에 들어갔으며 지금은 여름방학 보충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1회 졸업식 때에는 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작년에는 8명의 학생들이 졸업하였습니다. 올해에는 22명의 학생들이 졸업을 하였습니다. 22명의 졸업생들 중 파리다라는 이름의 여학생이 있습니다. 파리다가 사는 마을은 푸부란이라는 모슬렘 마을인데 큰길에 따라 30분정도 걸어가다가 다시 해변의 자갈밭을 30분쯤 걸어가야 도착하는 마을입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4월 첫째 주에 홍보를 위해 아이들의 집을 가정방문을 하였습니다. 뜨거운 태양으로

리 단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 생계를 위해 지원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다면 더 많은 미래가 보장될 텐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또 파리다가 대견합니다. 비록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등학교까지 잘 마칠길 소망해 봅니다.

#### 2. 여름성경학교(VBS)

4월 11일 월요일부터 4월 15일 금요일까지 5일간의 여름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14면으로 계속)

### 진도에 날개를 달아라

이동재 목사 (분당한신교회)  
소강석 목사 (새에덴교회)  
전병길 목사 (강남교회)  
장경동 목사 (대전중문교회)  
주성민 목사 (세계로 금관교회)

추천!!!

진도는 은사 받은 자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최고의 진도서다.  
한신교회 5년 연속 진도왕, 교단 2회 진도 우수상, 20여 교회 진도집회 인도 등 진도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 귀족상 장로의 경험을 고스란히 담았기에 진도 내내게이선과도 같다.  
곽준상 지음 | 278면 | 13,000원

### 사람이 없는 광야에 비는 내리고

다산교인  
설보우  
김진홍

삼대지 설교뿐 아니라 4페이지 설교, 이야기 설교, 분석 설교 등 다양한 설교 구성 방법을 본문에 맞게 적용해온 저자에게 설교 기법을 배울 수 있어서 내용이나 구성에서 설교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좋은 자료가 되는 정주금교회 김진홍 목사의 10번째 설교집.  
김진홍 지음 | 384면 | 13,000원

### 행복한 교회 최명일 목사

## 아빠! 예언서를 어떻게 드려요?

신앙교백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갖고 거기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책에 신앙교백의 기본 설교 22편을 담았다.

아빠!  
어떻게 열매 맺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요?

산상수훈은 천국시민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키고 추구해야 할 실제적인 삶과 규범을 가르친 기독교 윤리의 대강령이다. 이 책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바로 알고 실천적 행함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천국시민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다.

최명일 지음 | 360면 | 13,000원(권)



#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08)

##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 한인교회를 위한 심리학적 기초 (32)

(Psychological Foundations for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들에 이어 오늘부터는 한인교회교육을 위한 심리학적 기초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합니다(Psychological Foundations for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심리학적 기초는 그 특정 역사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주체인 "사람들", 즉 우리 자신들과 우리가 교육하고 섬기는 우리 자체 및 다음세대들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심리학(Psychology)이라는 학문은 그 어떤 학문보다도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는 심리학이 인간의 의식 및 행동에 관한 연구이며, 이에 기반한 인간의 배움의 과정을 그 연구의 핵심 주제 중 하나로 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면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대로 21세기 교육 전반이 기본적으로 심리학적 이론들, 심리학적 임상 연구 결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교육자들로서 우리들에게는 기독교적 신앙 및 가치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대목이기 때문입니다(또한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들을 세워 나가자 하는 자들로서 우리에게는 한인교회라는 독특한 상황적 요인 또한 중요한 대목이므로 보다 더 심도 깊은, 보다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들을 통해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자체들과 다음세대들의 행동적, 인지적, 정서적, 정신적, 관계적 그리고 발달적 양상들 및 그것들과 관련된 삶에서의 패턴들에 대해 규정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이들을 기독교적 신앙과 가치 및 특수한 문화적 이해에 비추어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심리학적 기초에 대한 상을 만들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아직까지 명확하게 "기독교적

거부하고 우리의 삶은 기독교적 신앙과 가치에만 관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심리학적 이해들과 기독교적 신앙 및 가치와 관련된 개념들을 적절히 섞는 입장으로서, 실상은 심리학적 이해를 그 근간으로 두고 약간의 기독교적 신앙 및 가치에 관련된 사항들을 포괄처럼 엮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기독교 교육자들에게 가장 합당하다고 소개된 것으로서, 어거스틴의 문구인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다(All truth is God's truth)"로 딱 떨어지게 잘 표현되는 입장입니다(Augustine, On Christian Doctrine, 2.40).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다(All truth is God's truth)"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발견된 진리는, 그것이 자연과학이든, 의학이든, 혹은 사회과학이든 그 어

## 모든 심리학적 이해 및 개념은 다 하나님의 주권아래 있어 기독교적 신앙과 가치를 풍성하게 소통하는 일에 사용해야

과들, 그리고 그러한 실천들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엿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심리학적 기초에 대한 이야기는 앞서 논의한 그 어떤 기초들보다 더 직접적으로 교육과 연결되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인 자체들과 자녀들 및 그들의 배움의 과정을 보다 잘 이해하여서 그 기반 위에서 선하고 효율적으로 합당하게 교육하고자 하는 사명을 가진 우리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심리학적 기초는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이야기 가 될 것이며, 교육을 향한 많은 통찰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심리학적 기초를 가져야 하는가입니다. 사실 오늘날처럼 심리학 이론들이 발달하고 심층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수많은 이론들과 그 이론들을 뒷받침하는 견해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이해들과 개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에 우리 사역자들은-실은 모든 교육자들이 섬기는 자체들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이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지, 이들과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만 합니다.

이들 중 어떠한 이론(들) 및 개념(들)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된 다양한 이론들 및 개념들을 어떻게 취사선택하여야 하는지를 고민하여야 합니다. 또한 어떻게 이들을 기독교 교육이라는 하나의 깃발아래 통전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필요합니다.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완전하게 잘 발전되어 있지는 않으나, 기존의 심리학적 이론들 및 연구 결과들을 기독교적 진리와 가치에 비추어 통전하려는 시도들은 지속적으로 존재해왔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가 마땅히 세워가야 할 심리학적 기초를 세우는데 인도자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은 그러한 심리학적 기초에 대한 상을 세워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심리학적 이해들과 기독교적 신앙 및 가치를 통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또 하나 꼭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일련의 고민을 거쳐 취한 심리학적 이론들 및 개념들을 어떤 식으로 기독교적 가치 및 신앙과 통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 논의들의 주된 자료가 되어주고 있는, "기독교 교육의 기초적 이슈들"(Foundational Issues in Christian Education)이라는 책에서 저자인 로버트 파즈미노(Robert Pazmino)는 기독교 심리학자로 불리는 로런스 크랩(Lawrence Crabb)이 그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피력한 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런스는 심리학과 기독교적 가치 및 신앙 간의 관계에 대한 입장이 4가지 정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심리학과 기독교적 신앙 및 가치는 별개의 것이며 구분되어 있다는 입장입니다. 둘째는, 심리학을 전면적으로

면 분야를 막론하고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시며 그에게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고로 이 입장에 의하면 기독교 교육자들은-우리 한인 사역자들도-심리학적 이해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를 가져와서, 섬기는 신앙 공동체의 자체들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며, 이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학문의 분야가 다 하나님의 주권아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심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심리학적 이론 및 실천 연구들을 통해 구성되고 밝혀진 모든 심리학적 이해들 및 개념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아래 있으며, 우리 사역자들은 그러한 심리학적 이해들과 개념들을 기독교적 신앙과 가치를 보다 풍성하게 소통하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 자체들과 다음세대들을 현명하고 풍부하게, 또한 선하고 합당하게 교육하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인교회교육을 위해 마련하고자 하는 심리학적 기초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러한 큰 틀거리를 생각하는 것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이야기에 한인교회교육을 위한 심리학적 기초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더 자세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sinaichung@yahoo.com

#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 월 이것이 그날이니이다(삼상24:1-5)

다윗이 동굴 깊이 숨어 있는 것을 모르고 사울왕이 동굴에 쉬기 위해서 들어오므로써 원수가 제 발로 죽으러 들어오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렇게도 자신을 괴롭히던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요 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일 뜻이 전혀 없다는 표시로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뺀 것을 가지고도 마음이

떨려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왕을 한 칼에 날려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 부으신 사람을 내가 손대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 화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삼상24:6-7)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를 감동시키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뺀 것을 가지고 마음에 떨려하는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보셨습니까? 이것은 사울왕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진정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경외하는 사람은 정말 단순합니다. 항상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말인가?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동인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 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삼상24:8-15)

본문을 사울이 동굴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호소함으로써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사울의 주변에는 늘 아부하는 사람과 다윗을 밀고하는 사람들과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늘 나쁜 정보와 이간질하는 사람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의 판단력은 더욱 흐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다른 성도를 이간질하거나 나쁜게 평가하는 사람과는 절대로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에게 끝까지 잘해 주고 겸손하게 대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 목 나는 너를 학대하나 너는 나를 선대하니(삼상24:16-22)

본문을 보면 사울왕이 정말 깊이 깨닫고 참된 회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이것도 그저 잠시 뿐입니다. 자신이 죽을 뻔했는데 다윗이 살려준 것에 대하여 감격했지만 그 때 뿐입니다. 사울왕은 매사에 인간적인 감정으로 사람을 상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었지만 늘 옹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늘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행

동하는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철들은 것 같는데 내일 보면 또 엉뚱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순간순간 인간적인 감정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 금 완고하며 맹사가 악하며(삼상25:1-3)

본문 말씀은 다윗이 그의 명에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러 수 있었던 사건을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사태를 모면하는 내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죽은 후에 조금 더 사울왕과 멀리 떨어진 팔레스틴 남부에 있는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바란 광야에 내려가서 다윗의 사람들은 나발이라고 하는 갈멜의 부자가 치는 양을 돌보아주었습니다. 나발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큰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갈멜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열 소년을 보내서 양식을 구합니다. 그런데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일언지하에 거절해 버리면서 오히려 심하게 모욕을 주어 내쫓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4백명을 거느리고 출동합니다.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은 참으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 토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삼상25:4-25)

원래 "나발"이라는 히브리어는 "미련한 자, 바보 멍청구리"라는 뜻입니다. 나발은 완악하고 미련한 부자였습니다. 나발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일반은총 뿐만 아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나발의 목자와 양을 주야로 지켜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미련한가 하면 나중에 부인의 지혜로 겨우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죽을 뻔했다는 사실에 놀라서 끄끙 매다가 하나님께서 치시

까 10일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실 때 늘 절제지 정신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은혜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 할 것입니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b>강남중앙감리교회</b>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호2동 1330-20	<b>군포제일교회</b>  담임목사: 권계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2)252-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호2동 1330-20					
<b>금란교회</b>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ran.org Tel. (02)2-490-7000, Fax. (02)2-436-5770 서울시 중구 광운동 340-(1131-231)	<b>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장상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b>로마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670(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b>새이덴교회</b>  담임목사: 소광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철야예배를 위한 헌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b>성문교회</b>  담임목사: 황정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 오전 5:00 새벽기도: 오전 6:30 Tel. (02)252-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호2동 1330-20	<b>성실교회</b>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02)2-990-999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43 (142-073)	<b>성일교회</b>  담임목사: 김경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토요일은 없습니다) Tel. (0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713-26호
<b>수정교회</b>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02)32-568-0191, Fax. (0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문동 416-(1131-270)	<b>승송교회</b>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사택(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로동 137번지	<b>시온소교회</b>  담임목사: 김경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마곡동 419-2	<b>신길교회</b>  담임목사: 이선홍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2-842-1968, 사택(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b>신천교회</b>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7길 29(남대문동)	<b>신촌교회</b>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후 2:00/6:00 Tel. (02)786-6579, 사택(0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b>안양 제일교회</b>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5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인구 제1동 146-7
<b>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0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곡로 415 www.yangok.org	<b>왕성교회</b>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02)2-889-4813, 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041-24 (151-029)	<b>장위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금요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b>주안교회</b>  담임목사: 주송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9-1(1403-838)	<b>창대교회</b>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2-482-3536, Fax. (0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b>청주주님의교회</b>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b>충신교회</b>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0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

격동하는 지구촌의 증말론적 시대상황에 대한 선교전략의 재정립을 위해!  
 세계복음화의 미완성과업을 위한 위대한 선교비전과 긴박성의 재확인을 위해!  
 700만 한인디아스포라와 7000여 한인디아스포라교회의 선교적 대각성을 위해!  
 국내외 최고 강사진 200여명과 세계한인선교사 1200여명을 비롯한  
 목회자, 평신도, 청년, 대학생, 청소년, 어린이 및 선교사자녀(MK) 등  
 도합 5000여명의 집결을 예상하는 이 시대 최대규모의 동반자 협력선교의 대광장!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에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2016년 6월 6일(월)-10일(금)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캘리포니아



로렌 커닝햄 YWAM 총재, 데이빗 로스 안디옥키백션 대표, 폴 애실맨 CRU 부총재, 론 스미스 YWAM SBS 성경학교, 타드 존슨 고든컨셀 교수, 존 왈러스 아주사대학교 총장, 서삼정 아틀란제일장로교회, 한기홍 은혜한인교회, 김남수 프라미스교회, 장영준 퀸즈장로교회, 나광삼 큰무리교회, 고석희 KWMC 사무총장, 이승중 샌디에고에수마교교회, 김혜택 뉴욕총신교회, 배현찬 주예수교회, 호성기 필라디안교회, 정인수 아틀란티안장로교회, 이동휘 바울선교회 대표, 정운찬 전 국무총리, 채수일 한신대학교 총장, 강승삼 KWMA 전회장, 박기호 풀러신학교 교수, 김양재 우리들교회, 오정호 새로남교회, 장상길 송도주사랑교회, 마이클오 국제로잔운동 총재, 이동열 GKM 사무총장, 송홍석 KWMF대표회장, 안성원 KWMF사무총장, 한도수 KWMF공동회장, 김종국 KWMF공동회장, 박명하 KWMF공동회장, 강대홍 태국선교사, 강성일 브라질선교사, 이극범 프랑스선교사, 최광규 도미니카선교사, 김영관 베트남선교사, 김경일 KWMF사무차장, 김정환 미주선교사, 정석천 태국선교사, 최용순 가나선교사, 이금주 말레이시아선교사, 김승호 일본선교사, 장영호 러시아선교사

## 제15차 한인세계선교사대회

2016년 6월 3일(금)-6일(월) /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전세계 한인선교사 1,200명



오정호 새로남교회, 유기성 선한목자교회, 진재혁 지구촌교회, 김양재 우리들교회, 김동엽 목민교회, 김문훈 포도원교회, 스코트스키스트 풀러신학교대학원장, 고석희 KWMC 사무총장, 한정국 KWMA 사무총장, 최형근 서울신대 교수, 김병운 필리핀 선교사, 강운식 기쁨병원 원장

등록/문의 [www.kwmc.info](http://www.kwmc.info) / [kwmf2016@gmail.com](mailto:kwmf2016@gmail.com)  
 KWMC • 인도네시아 62-813-8100-9905, 070-8221-1361 • 미국 1-213-507-3875

KWMC2016 6월 6-10일	일반 (만26세 이상)	대학생/청년 한어권/영어권 (만18~25세)	청소년 (만13~17세)	초등학생 (만7~12세)	아동 (만3~6세)
1차 3/31 마감	□ \$300	□ \$200	□ \$150	□ \$100	□ \$50
2차 5/15 마감	□ \$325	□ \$225	□ \$175	□ \$125	□ \$75
3차 6/5 마감	□ \$350	□ \$250	□ \$200	□ \$150	□ \$100
KWMC 대회숙박	□ 기숙사 2인1실 \$150 /1인당 (4박5일) □ 아파트 2인1실 (2 베드룸) \$200 /1인당 (4박5일) □ 아파트 2인1실 (1 베드룸) \$215 /1인당 (4박5일)				동숙-무료 별도침대 □ \$50

\*숙박을 안하실 경우 등록금만 내시면 됩니다. \* 하루만 참가하실 경우(DAY-PASS) \$100 입니다.  
 \*한 교회에서 단체등록시 10명 이상은 등록금 10%를 할인해 드립니다. (숙박비 예외)

## 제3차 선교사자녀대회

2016년 6월 3일(금)-6일(월) 17세 이상 선교사 자녀 400명

모든 세대가 함께 가는 KWMC2016!  
 KWMC2016은 모든 세대가 함께 가는 선교대회입니다.  
 아래 대회들은 모두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와 동일한 일시인 2016년 6월 6일(월)-10일(금) 등 일한 장소인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캠퍼스내에서 개최됩니다.

### 영어권대회 English Conference

18세 이상 영어권 대학생/청년  
 이동열 선교사 GKM 사무총장

### 어린이선교대회

3-12세  
 여병현 목사 어린이전도협회

### 청소년선교대회

13-17세  
 고현진 전도사 고유진 전도사

일시	대회	대상
6/3(금)-6/6(월)	한인세계선교사대회	전세계 한인선교사
	MK(선교사자녀)대회	17세 이상 선교사자녀
	MK청소년선교대회	13-16세 선교사자녀
	MK어린이선교대회	3-12세 선교사자녀
6/6(월)-6/10(금)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	18세 이상 한어권
	차세대영어권선교대회	18세 이상 영어권
	청소년선교대회	13-17세 청소년
	어린이선교대회	3-12세 어린이

등록/문의 **KWMC** 온라인등록 ▶ [www.kwmc.com](http://www.kwmc.com)  
 이메일등록 ▶ [kwmc@kwmc.com](mailto:kwmc@kwmc.com)  
 전화 ▶ 516-277-2081, 2082  
 팩스 ▶ 516-686-6128  
 ▶ 등록비가 인상되기 전에 속히 등록하시고 항공편도 속히 예약하실수록 저렴할 것입니다.

# KWMC2016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  
 Korean World Mission Council for Christ  
 1330 Wolver Hollow Rd, Oyster Bay, NY 11771

2016년 6월 6일(월)-10일(금)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캘리포니아  
 901 E Alostia Ave, Azusa, CA 91702